

# 基督教와 現代詩

權 永 溱\*

- |                      |            |
|----------------------|------------|
| I. 서론                | 1. 운동주     |
| 1. 문제제기 및 연구동향       | 2. 김현승     |
| 2. 논의의 방향            | 3. 박두진     |
| II. 현대 기독교시의 형성 및 전개 | 4. 구상      |
| 1. 광복 이전의 시          | 5. 종합적인 검토 |
| 2. 광복 이후의 시          | IV. 결론     |
| III. 대표적 기독교 시인의 경향  |            |

## I. 서론

###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동향

한국의 현대시가 형성, 전개되는 동안 시정신으로서의 기독교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 왔으며, 그 문학사적 의미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근대시의 단초를 이루는 개화기 시가는 물론 그 뒤 20,30년대를 거쳐 운동주, 김현승, 박두진 등의 시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시는 한국 현대시의 깊이와 수준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기독교 사상으로 우리 현대시는 새로운 기독교 모랄과 기독교적 휴머니즘을 접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현대시사의 전개에 주요한 내적 요인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현대기독교시에 대한 검토는 근대 문학 초창기부터 한국현대문학에 큰 영향을 준 기독교정신이 우리의 시문학에 어떻게 투영되어 발전해왔는가에 대한 점검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앙과 시사의 상관관계를 비롯한 원론적인 관점에서의 검토, 시인과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논의, 이들 논의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시문학사의 체계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대기독교시에 관한 논의는 원론적인 관심, 개별적인 시인분석 등은 비교적 논의가 활발한 편이나 단편적이면서도 광범위하게 다루어져 있을 뿐이고, 문학사적인 거시적 관점에서의 체계있는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현대 기독교시 관계 논의는 1) 한국에 있어서의 기독교시의 개념, 2) 기독교 신앙의 수

---

\* 人文大學, 國文科 教授

용과 기독교시 토착화의 문제, 3) 개별적인 기독교 시인론 등으로 대별한다. 1) 은 원론적인 연구로, 기독교시의 개념 정의나 일반적인 특성, 기독교시의 방향, 시와 신앙과의 관계 등의 문제가 다루어졌다.<sup>1)</sup> 이러한 논의의 공통된 주장은 기독교시는 기독교를 선교하거나 호교하는 수단이 아니며, 시에서 기독교 신앙이나 정신, 사상을 수용하되 언어예술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독교 신앙시에서 신앙적인 측면과 언어예술로서 시의 형상성의 측면은 서로 양립될 수 없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2) 의 논의는 한국에서의 기독교의 역사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음을 들어 한국의 현대기독교시를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sup>2)</sup> 3) 의 기독교 시인론은 개화기 시가 및 이광수·최남선 등의 기독교시에 대한 연구와 1930년대 이후의 기독교시인론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30년대 이후의 시인으로는 정지용, 윤동주, 김현승, 박목월, 박두진, 구상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개별 시인에 대한 논의는 무수히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이들 시인을 서로 비교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sup>3)</sup> 이러한 비교시인론은 기독교시문학사를 마련하는 데 선행되어야 할 일차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논의의 축적과 더불어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

## 2. 논의의 방향

본고는 그동안 논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독교시에 의해 확립된 현대시의 깊이와 수준을 문학사적 관점에서 정리해보고자 한 것이다.

- 1) 《기독교사상》지에 실린, 김하태의 <현대문학과 기독교 전통> (1961.8), 전영택의 <기독교 문학론> (1957. 창간호), 조남기의 <기독교문학론> (1978.9), 황헌식의 <한국 기독교문학의 모색> (1982.2) 등을 비롯, 김희보의 《한국문학과 기독교》(현대사상사, 1979), 김주연 편 《현대문학과 기독교》(문학과 지성사, 1984), 김영수의 《기독교와 문학》(한국기독교문학 연구소출판부, 1978), 조신권의 《성서와 문학》(신원문화사, 1986) 등의 단행본 연구서 등 기타 많은 연구에서 다루고 있다.
- 2) 박태욱, <한국현대시의 기독교사상>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권국명, <한국현대시의 종교수용문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대건출판사, 1986), 신복룡, <한국에 있어서 기독교의 수용과 현실> (씨올의 소리, 1974)
- 3) 박이도, <한국현대시에 나타난 기독교 의식-윤동주, 김현승, 박두진 시를 중심으로-> (경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이승하, <한국기독교적 시의식 연구-인간관, 죽음관을 중심으로-> (중앙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 정지용, 윤동주, 김현승, 박목월의 시를 비교하였다. 신익호 <한국현대기독교시연구-김현승, 박두진, 구상 시를 중심으로-> (전북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7), 이운룡, <한국기독교시연구-김현승, 박두진, 구상을 중심으로-> (조선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박정례, <한국현대시의 종교성에 대하여-김현승, 박두진, 박목월을 중심으로->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등이 보인다.

그 동안의 논의를 수렴, 주목되는 시인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문학사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는 목표 아래, 먼저 개화기 이후부터 광복 이후 시기까지 한국현대기독교시가 어떻게 형성, 전개 발전되어왔는가를 먼저 살펴 보고자 한다. 한국현대기독교시의 전개과정을 체계를 갖추고 깊이 있게 본격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기독교시의 전개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몇몇 시인을 시대 중심으로 설명한 정도이다.<sup>4)</sup> 본고에서도 본격적인 논의는 보류하고, 기독교시문학사의 전체적인 시각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기존 논의의 성과를 중심으로 정리함으로써, 기독교시의 수준을 가늠하고 구체적인 작품 분석의 대상과 그 근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문학사적으로나 그 수준에 있어서 주목되는 몇몇 시인의 작품을 실제로 분석하여 현대기독교시의 위상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대상 시인은 지속적으로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시작활동을 전개하여 나름대로 독자적인 시세계를 구축한 윤동주, 김현승, 박두진, 구상 등 네 시인으로 국한한다. 이밖에 정지용, 박목월 등의 작품도 주목되는 바가 없지 않으나 이들의 기독교시가 특정시기에 한정되거나 동시대의 다른 시인과 비교하기에는 치우쳐 있는 시인들이어서 일단 논의에서 제외한다. 작품 분석은 각 시인의 주요 이미지<sup>5)</sup>를 중심으로 이미지를 패턴화하고, 그것이 상상력에 의하여 어떤 뜻과 형태를 만들어갔는가를 살펴면서, 종교적 상상력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그 의미를 밝혀 서로 다른 시세계를 대비하는 준거로 삼는다. 이미지 분석방법을 택한 것은 이미지는 비유나 상징의 매개체로서 시의 구조, 의미, 효과 등을 파악하는 데 주요 단서가 되며, 특히 종교시의 비유나 상징을 해명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편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II. 현대기독교시의 형성과 전개

한국 현대 시문학사 안에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서정시가 어떻게 형성, 전개되어 왔으며, 그 위상은 어떠한가를 확인 하는 것이 본 장의 목적이다. 우선 ‘기독교시’라는 말을, 문학의 구

4) 현대기독교시의 형성, 전개 과정에 대한 언급을 보이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장백일, <고독속에서 찾는 敎道-기독교와 문학-> (기독교사상, 1976.8), 구창환, <한국문학의 기독교 사상연구> (한국언어문학 15, 1977.12), 이운룡의 전기서 가운데 <기독교시 계보와 그 토착화>, 신익호의 전기논문 가운데 <한국기독교시의 특성과 전개과정> 등이 있다.

5) 바슐라르는 시에 나타나는 의미는 개념적인 차원을 넘어서 시인의 사물현상에 대한 원초적 경험의 감성적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시의 올바른 해석은 자기 그 속에 나타나는 이미지 등을 분석함으로써 그 시인의 원초적 경험에 접하는 데 있다고 했다.

조적 차이에서 정립된 장르적 개념이 아닌, 시인의 상상력, 가치관, 통찰력 등에서 기독교적 요소를 지니는 내포적 개념으로 보고, 기독교적 관점이 드러나는 시작품이면 포괄적으로 기독교시의 범주에 넣어 살펴보고자 한다. 종교시로서 기독교시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 원죄의식, 영혼과 육체의 갈등, 선과 악의 대립, 인간의 타락과 구원,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 정의의 실현과 인간가치의 옹호 등 여러가지 종교적 관심이 주제화될 수 있고, 그 표현의 방법이나 수준도 각 시인과 시대마다 다양하게 전개되어왔다고 하겠는데, 그 구체적인 양상을 한국현대시사의 흐름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현대시문학사는 광복을 전후로 그 성격을 크게 달리 하는바, 본고에서도 이 두 시기를 크게 구분하고 각 시기는 단계별로 세분하여 ‘광복 이전의 시’를 1) 1910년대, 2) 1920년대, 3) 1930년대 - 1940년대 전반기로, ‘광복 이후의 시’는 1) 1940년대 후반 - 1950년대, 2) 1960년대, 3) 1970년대 이후로 나누어 살핀다. 1940년대는 광복을 바로 전후로 하는 시대로 정치 사회적으로나 문학사적으로나 커다란 변동기라 하겠는데, 기독교시는 오히려 빈약한 편이어서 각기 앞뒤 시기로 포함시켰다. 여러 시기를 거치면서 작품활동을 한 시인은 시적 변모를 중시하여 매 시기마다 단계별로 고찰하고, 기독교시를 일시적으로 쓴 시인은 등단시기와 관계없이 해당시기에서만 언급하여, 한국현대기독교의 점진적 발전과정을 점검하고 그 수준과 위상을 확인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 1. 광복 이전의 시

### 1) 1910년대

개화기를 거쳐 1910년대는 신문학 초창기로 육당, 춘원의 2인 문단시대이다. 이 시기는 계몽사상과 자주독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공리적 교훈주의문학 시기로, 이들의 시에 나타나는 기독교 의식도 투철한 신앙심에서 비롯되기보다 민족구원을 위한 휴머니즘적 구원사상으로 나타난다. 이광수는 일본 유학 시절 성경을 배우고 미션계인 오산학교에서 교편을 잡아 일찍부터 기독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선각자로서, <하나님>, <내 罪>, <기도>, <미쁨>, <가시관>, <사랑> 등의 시에서 기독교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미쁨 2>의 일부를 보면, “에덴동산의 / 불쌍한 이와에게 /千萬代 에 滅치 못할 罪惡의 뿌리를 심은 것이 - 무엇으로냐 / …… / ‘어디를 가든지 / 주를 쫓으리다’ / 하고 주먹을 불끈 쥔 베드로 / 아마 닭이 울기 전에 / 세번은 過하다, 세번 ‘모른다’는 정말 過하였다.”로 되어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참회의 심정을 드러내었다. 금강산 비로봉에서 쓴 <기도>의 경우에도 현실사회의 죄악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죄에 대한 의식은 기독교 신앙심에서 비롯되어 나타나는 인간의 원죄의식이라기 보다는 지식인의 참회의식으로 머문 느낌을 주며, 전

반적인 시적 구성도 함축적이지 못하고 시의 형식을 빈 관념적인 설명으로 그친 한계를 보인다. 최남선의 시에서도 기독교적 사유의 흔적을 볼 수 있다. 그의 신체시 <舊作三篇>의 일부를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지닌 것 없소 / 비수나 화약이나 - / 그러나 무서움 없네 / 면류관의 힘이라도 / 우리는 어찌 못하네 / 우리는 옳은것 꿩이삼아 / 큰 길을 다스리는 자일세” 라 하였는데, ‘면류관’ ‘옳은 것’, ‘큰 길’ 등과 같은 표현의 발상 역시 기독교적인 영향의 산물로 간주되고 있다.<sup>5)</sup> 또, 그가 주제한 《청춘》지 종간호의 권두시(23호, 1911)의 일부를 보면, “오소서 우리 主여 살려주소서”라고 하여, 구원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의 시적 주제들인 자유, 정의, 평등, 독립 등은 구체적으로 기독교사상에서 연유되는 바가 없지 않지만, 민중 계몽과 민족의식을 고취한 지식인의 제한된 기독교적 상상력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춘원이나 육당의 시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것은 자신의 절실한 체험으로써 보다는 하나의 외래적인 지식에 의한 사유로써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고, 표현 기법에서도 성서적인 소재나 구절을 차용한 관념적인 것에 머물러 기독교사상이 시적구조에 의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형상화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양상은 또한 기독교적인 것이 우리 신문학기의 시가작품에 반영된 초기의 경향이며 그 한계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 2) 1920년대

이 시기는 3.1운동의 좌절로 인한 깊은 절망감이 팽배하였고 시문학사상으로도 퇴폐적 감상주의가 지배적인 시대였다. 3.1운동은 실패로 끝났으나 그동안의 무단정치가 이른바 문화정치로 완화되면서 신문 창간, 문예지 발간 등이 이루어져 문예활동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변모와 더불어 시창작도 활발해졌으나, 기독교시는 별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우선 이 무렵 시 전문지 동인들 가운데 황석우, 남궁 벽, 변영로, 양주동, 이동원 등의 일부 시에서 기독교적인 어휘나 성서적인 모티브, 경구 등이 사용되고 있어 기독교시의 한 경향을 볼 수 있다. 황석우의 “태양이 되기만 하면 / 基督이 되기만 하면” <靑毛의 猫>, 남궁 벽의 “사람의 악을 볼 때 / 항상 내세의 심판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말 馬>). 변영로의 시(<오, 나의 영혼의 기여>)에 보이는 “비맞은 버들이 너의 아름다움이 아니며 / 조용히 달린 基督의 수난이 너의 운명이 아니다 / 오! 나의 영혼의 기여, 기껏 펄렁거려라” 등의 표현을 비롯하여, 1924년 《금성》지에 발표된 양주동의 시 <惡禱> “그러면 主여 내게 武器를 주소서 / 復讐의 武器를 快히 빌려주소서 / 그리하여 내손으로 저의들을 다뭇질은 뒤에 / 오오 主여 내 몸 까지 硫黃불로 살워주소서.” 이듬해 《조선문단》에 발표된 李

5) 김희보, <한국 기독교 문학> (기독교 대백과사전 6, 기독교문사, 1982), p.61.

東園의 시〈悲劇〉(“惡魔는 人間에게 가장 親切하다 / 하나님도 모르시는 必要까지 알고 / 悲劇을 맨들어 주었스니”) 등에서 ‘基督’, ‘내세의 심판’, ‘영혼’, ‘主’, ‘유황 불’, ‘악마’, ‘하나님’ 등 성서적 어휘, 이미지들이 발견된다. 이들을 소재로 하여 현실의 악, 수난, 비극을 표출하고 있는데 이 무렵 지배적 사조인 낭만주의의 관념적 어휘나 영탄적 어조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이들과는 달리 독실한 신앙성에 바탕을 두고 전통적인 신약성서의 신(主)을 찬미하는 자아고백적인 시를 쓴 시인으로 장정심과 이용도가 있다. 장정심은 20년대 후반에 등장한 신학교 출신의 여류시인으로서, 시집 《주의 승리》를 내었는데, 〈기도실〉, 〈기원〉, 〈선물〉, 〈이 잔을 받으세요〉 등의 시에서 신앙심을 표현하였다. 〈기원〉의 일부를 보면, “心海의 파문이 일 때 주님만은 아옵시고 / 야밤에 들려 주시던 자비하신 그 음성”이라 하여, 신약의 신을 ‘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겨 마음의 평안을 확신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이용도(1900-1933)도 목사로서 경험적인 신앙관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시 〈주님의 사랑〉에서는 ‘살림이 가난하여도, 세상이 어려워도, 나라는 망하여도, 사회는 소란하여도, …… 육신은 죽어도’ ‘주님은 사랑이시이다’ 라고 주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절망적인 현실이나 불안한 삶을 소박한 기독교 신앙으로써 극복하고자 하는 자세를 볼 수 있는데, 시적인 이미지보다는 산문체의 서술형태로 자기의 신앙심을 토로하는 데 그친 한계를 드러낸다. 이와같이 이 시기의 기독교시에는 앞선 시대의 성서적 소재차용 경향이 이어지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신앙고백적인 시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기독교 정신이 대사회적인 현실의식이나 개인의 내면 의식에 바람직한 시정선으로써 작용하지는 못한 듯하다. 시대적인 절망과 허무, 사상적 갈등 속에서 기독교시가 활발히 창작되지 못하고 기독교가 큰 정신적 지주로써 제대로 표상되지 못한 것은 이 시기 기독교시의 한계라 하겠다.

### 3) 1930년대 ~ 광복

1930년대 한국 시문학의 발전과 더불어 기독교시도 이 시기에 본격화되어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게 되었다. 기독교시인으로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윤동주를 비롯하여 정지용의 카톨릭 시, 김현승과 박두진의 문단데뷔기 시, 오신혜의 신앙시 등을 들 수 있고, 그밖에 이은상, 모운숙 등의 시에서도 기독교적인 상상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은 신앙심이나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신앙시에서뿐만 아니라 현대시사상으로도 독자적인 시세계를 구축한 비중 있는 시인들로서, 한국현대기독교시의 본격적인 형성을 보게 한 시인들이다. 이들의 작품은 전반적으로 전대의 작품에 비해 기교면에서 훨씬 성숙한 면모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체험의 시적 형상화도 탁월하게 이루어 현대시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운동주는 이육사와 함께 민족적 질곡이 극심해지는 일제 강점 후기를 저항시로서 대결한 시사적 의의를 가지는 시인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명동소학교, 송실중학교, 연희전문 등 미션계 학교를 다니면서 일찍부터 기독교적 사고에 젖어 있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詩》에서 종교적 표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는 〈삶과 죽음〉, 〈초 한대〉를 비롯, 〈異蹟〉, 〈八福〉, 〈太初의 아침〉, 〈또 太初의 아침〉, 〈十字架〉, 〈또 다른 故郷〉, 〈懺悔錄〉등을 들 수 있으며, 그밖의 대부분의 작품도 기독교적 발상에 의한 시들이 많다.

1934년에 쓴 〈삶과 죽음〉, 〈초 한대〉는 시로서의 형상화는 아직 미흡하지만 순교자들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 못박힘 등을 표상하고 있어 기독교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일찌감치 드러낸다. 그의 시는 기독교에 뿌리박은 투철한 자기응시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고요하고 내면적인 자기 성찰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자아의식이 시대적 비극과 만날 때 그러한 현실속에서 자아에 관한 실존적 자각에 눈뜨게 되어 적극적인 행동에의 의지를 표현하기도 한다. 운동주는 기독교를 현실의 실천윤리로 생각하고, 부활에 따른 종교적 환희를 상상하기보다 부활을 준비하고 가능하게 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윤리와 의무, 그것의 엄숙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그의 시적 자아의 일관된 지향성이었다. 일제 강점기 말엽 적지 않은 시인들이 일제의 탄압과 회유책에 의해 변절을 거듭해가지만, 기독교적 양심과 희생적 사랑이 밀바침된 시를 통해 대결해나감으로써 기독교시뿐 아니라 한국현대시사에서도 보기도 못한 뜻 있는 업적을 남겼다.

전통적인 서정과 감각적인 시로 이름을 떨친 정지용은 이 무렵 “신앙이야말로 시인의 日用 觀的 糧道가 아닐 수 없다.”<sup>6)</sup> 라고 하면서 카톨릭 신앙시인으로서의 변모를 보여 주었다. 그의 신앙시는 《카톨릭 청년》(1933. 6 창간)에 주로 발표되었는데, 〈不死鳥〉, 〈나무〉, 〈恩惠〉, 〈별〉, 〈臨終〉, 〈갈릴레아바다〉, 〈그의 반〉, 〈다른 한울〉, 〈또 하나의 太陽〉 등 9편 정도이다. 그러나 시 〈임종〉의 일부 구절 “나중 죄를 들으신 神父는 / 거룩한 產婆처럼 나의 靈魂을 가르시라”, “永遠한 나그네 入路 路資로 오시는 / 聖主 예수의 쓰신 圓光! / 나의 영혼에 七色の 무지개를 심으시라” 등에서 보면, 종교적 어휘들이 심정적으로 다루어져 있고, 죽음의 관념도 영혼의 구원을 상징하는 기독교적인 것이기보다는 현실의 허무를 달래려는 듯한 태도를 볼 수 있는데, 김윤식의 지적처럼 “카톨릭을 내면화하지 못하고 시를 짓기 위한 배경으로 간주했다.”<sup>7)</sup> 고 할 수 있으며, 그의 종교적 차원은 인간적 실존의 고뇌가 결여된, 사유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그의 신앙시는 신앙적 체험이 본질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생경한 관념이 노출되고 기교면에서도 그의 다른 작품에 비해 미숙한 편이다.

6) 정지용, 《문학독본》, (박문출판사, 1984), p.31.

7)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p.430.

김현승은 전기적 사실로 보나 시세계로 보나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모태신앙으로 부터 태어나 엄격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고 미션계 학교에서 수학하는 등, 기독교는 그의 인생관, 세계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 무렵 그의 시는 자신이 말한 대로 민족적인 로맨티시즘과 센터멘털리즘적인 초기시들이는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은 볼 수 없다. 그러나 일제의 어둡고 긴 밤에서 光明한 아침을 기다리고,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확신과 열망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어 신앙의 건강한 역사관을 볼 수 있다. 그의 기독교시는 8년 간의 침묵 후 광복 이후의 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30년대말 《문장》지의 추천을 받고 등장한 박두진도 《문장》지가 폐간된 1941년 이후 1945년 까지 침묵을 지켰는데, 데뷔작품인 〈香峴〉, 〈墓地頌〉, 〈蟻〉 등에서부터 부활신앙이나 메시아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자연을 통해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신의 섭리와 자연의 신비감을 노래하였다. 같은 《문장》지의 추천을 받은 여류시조시인 오신혜는 1935년 《望洋亭》이란 시조집을 내었는데, 〈주님께 드리는 노래〉에서 기독교의 구원관을 표현하고, 〈수양버들〉, 〈낙화〉, 〈진달래〉등에서 기독교적인 생명의식을 노래하기도 했다. 오신혜의 시는 주로 간구, 기원의 형식으로 나타나며, 비유적인 표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내 죄악 구름되어 앞길막아 캄캄하네 / 참되신 빛이 되신 내 주님의 밝은 빛을 / 비치는 보름달 되기 두손모아 비노라” 〈보름달〉에서). 같은 여류 시인으로 1930년을 전후하여 등단한 노천명은 1933년 처녀시집 《빛나는 地域》을 냈는데 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여성운동가, 정치가로서도 활약하였다. 이 무렵 그의 시는 신앙적 염원을 바탕으로 소박한 한국적 여인상의 형상화를 통해 시대적 요구의 여인상을 그리고 있다. (“성전에서 듣는 祈願의 음향을 / 나는 지금 그 女子의 심장을 듣노라 / 늙은 왜나무에 기대여 / 오늘 설움을 헤아리다가” 〈밀밭에선 女子〉 끝 연) 존재와 실상의 양극에서 기독교를 매개로 하여 시대상을 극복하는 언어를 보여주었다.

이 시기의 기독교시는 보다성숙한 면모를 보여준 것은 사실이나 대체적으로 기독교적 정서가 구체적인 생활을 통해서 다듬어지지 않은 채 생경한 표현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 사상의 체험적인 토착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라 하겠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언어예술로서의 기독교시로는 미흡한 편이다. 이같은 전반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를 통해 기독교 사상을 심화시키고 그러한 시를 의지화해 나간 운동주의 신앙적 자세와 시적 표상은 이 시기에 이룩된 바람직한 기독교시의 한 전범이었다고 하겠다.

## 2. 광복이후의 시

### 1) 광복 ~ 1950년대

민족의 광복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과 글을 회복하여 詩壇이 再生되고 새로운 시문학사를



전개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사상의 좌우 대립 등 사회의 갈등과 혼란으로 이 시기 시문학도 순탄치가 못했다. 이 시기 기독교시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광복의 기쁨을 감사하기보다 잇따른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참회의 기도, 구도의 자세를 보이기도 하고, 사회의 비합리적 부조리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가장 먼저 시단을 장식한 청록파의 박두진은 《청록집》(1946), 《해》(1949), 《午禱》(1953) 등 광복 직후부터 6.25 무렵까지 일련의 기독교시를 발표하였는데, 자연친화의 전통적인 모티브를 기독교적 인생관, 역사관에 결합시켜 개인적 구원의 의식과 함께 민족집단의 구원과 그 인도를 신에게 호소하였다. 김현승도 광복 이전 8년 여간의 침묵을 깨뜨리고 이 시기에 와서 다시 작품활동을 전개하였는데, 1960년대 초반까지 《김현승시초》(1957), 《옹호자의 노래》(1963) 등의 시집을 통해, 外面의인 자연의 세계에서 인간의 내면적인 세계로 관심을 돌리면서 신앙과 이상에 대해 긍정적 자세를 보여주고, 신앙과 정의에 입각한 사회적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의 기독교시는 신 앞에 선 개인의 종교적 열망에 초점을 맞춘 內省的 서정시들로 이루어졌는데, 전통적인 신약성서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전생명을 바쳐 구도를 염원, 갈구했고, 실존적 고통을 소재로 하여 신과 대결해나가기도 하였다. 구상은 1947년 월남한 카톨릭 시인으로서 이 무렵 시집 《구상시집》(1951)과 《焦土의 시》(1956)를 출간하였다. 구상의 기독교시는 개인적인 갈등, 회의, 구원의 문제 등에 국한되지 않고, 시대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지적, 예고하는 예언자적 태도를 보여준다. 특히 《초토의 시》는 15편의 연작시로서 6.25가 빚어낸 비극적 현실을 초극하고자 하는 의지와 기원을 보여준다. 시대적인 어둠의 구체적 실상을 딱딱히 파악하여 빛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특이한 역사의식과 초극정신을 보게 된다. 같은 카톨릭 계열의 김남조는 1952년 처녀시집 《목숨》을 비롯 7권의 시집을 통하여 ‘기도의 시’를 보여주었는데, 절대지배자에 대한 시인의 순종과 인류와 생명을 위한 염원을 노래했다. “불 붙는 서울에서 / 금방 오무린 연꽃처럼 죽어갈 지구를 붙잡고 / 살면서 배운 / 가장 욕심없는 기도를 올렸습니다.”(〈목숨〉의 일부), “돌맹이 처럼 굴러 그래도 죽지만 않는 / 그러한 목숨이 갖고 싶었습니다.”(〈默珠〉에서) 이 밖에도 조용한 기도의 분위기를 드러내는 시로 〈기도의 문〉, 〈祝願〉, 〈夜願〉 등이 있는데, 기도가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나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찾는 적극적 자세로 신과 일치하는 신앙을 추구하여, 바람직한 기도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밖에도 이 시기 기독교시를 쓴 시인으로는, 구상과 함께 월남한 김동명파 이상로, 임인수, 석용원, 박화목, 황금찬 등이 있다. 이들은 마리아 찬양과 예수의 고뇌를 그리기도 하고(김동명, 〈성모마리아의 초상화 앞에서〉, 〈수난〉),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부조리에 대한 저항으로 보기도 하며(임인수, 〈최후의 독백〉), 그 밖에 자책과 절규(박화목),

위안과 찬미(황금찬), 사회적 부조리와 정치적 부패에 대한 고발(이상로)의 시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는 광복, 6.25, 휴전으로 인한 반영구적 민족분단, 반민주적인 정치질서 등 숨가쁜 역사적 변동을 거친 시기로, 참회와 기도, 개인과 집단의 구원, 참다운 진실과 인간성의 옹호 등 다양한 내용들이 시로써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표출되었다. 기독교 정신에 의한 상상이 이 시기에 와 다양한 모습으로 구체화되면서 한국적인 기독교시의 체계가 어느 정도 틀을 다지게 되었다.

## 2) 1960년대

1960년대는 정치 사회적으로는 5.16을 거치는 민주질서의 시련기에 해당하지만 시문학사적으로는 50년대의 과도기적 반항기에서부터 비판적 안정기로 접어든 시기이며, 현실 참여적인 狀況詩와 순수 예술적인 기교시가 대립하는 가운데 문인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기독교시 분야에서도 양적으로 전에 없는 활기를 띠게 된다. 1957년에 창간된 《기독교사상》지를 비롯, 그 뒤 《기독교시단》(1965), 《기독교 문학》(1965), 《다락방 문학》(1969) 등 기독교적 색채를 띤 문학동인지, 기독교문학에 지면을 할애한 《신학지남》, 《신학세계》, 《새벗》, 《새생명》 등의 잡지가 기독교시 발표의 무대가 되어 기독교시의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다. 《기독교시단》의 경우, 박두진을 대표로 하고, 김현승, 오신혜, 박이도, 박화목, 황금찬, 김태규, 윤혜승, 조남기, 박근영 등이 멤버가 되어 다섯권을 내었다. 이들 기독교 잡지를 통하여 배출된 시인과 작품은 엄청난 숫자에 이르고 있으나 질적 수준보다 양적 팽창에 중점을 둔 결과로 아직 문단의 한 주류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시기 기독교 시인으로 박두진, 김현승, 구상과 함께 박목월, 전재동, 박이도 등의 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박두진은 《거미와 星座》(1962), 《人間密林》(1963), 《하얀 날개》(1967) 등 일련의 시집을 내었는데, 자연을 통해 현실의 비극을 초극하며 이상을 추구하던 데서 인간과 지상의 시세계를 보여준다. ‘거미’의 생리와 생태를 통해 현대의 악과 그 罪性을 고발하는 등 현실과 밀착된 시정신을 보여주면서 절대신앙의 세계를 견지하였다. 구원의 추구보다 기독교정신에 입각, 사회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비판한 시기이다. 김현승은 이 시기에 이르러 고독과 신앙의 문제가 작품의 주조를 이루며, 내적인 갈등을 표상하는 고독시집 《견고한 고독》(1968), 《절대고독》(1970)을 통해 인간적인 삶에서 오는 고독과 자의식에서 배태되는 신앙적 회의로 신과 대결하는 치열한 내면의 시세계를 추구하였다. 김현승은 이 시기 고독시편을 통하여, 견고하고 영구성을 지닌 독특한 개인적 심상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17세기 형이상 시인들의 畵想과 유사한 표현이나, 추상적인 관념을 메타포없이 사물로 감각화 하는 기법 등을 보여 주어 한국 현대시사에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도 했다. 이 시기 후반에 구상은 시집 《발日記》(1967)와 연작시 〈江〉(1969)을 발표하였는데,

형이상학적 인식을 통해 역사의식과 인간존재의 내면세계를 추구하였다. 그의 현실 의식과 존재추구는 현실의 타락과 부조리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비판,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기독교적 윤리성을 기저로 삶의 모순된 구조를 변화시키려 한다. 청록파의 박목월은 이 시기에 와서 평범한 일상적 삶을 소재로 하여 존재의 각성을 수반한 기독교 신앙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의 신앙시는 시집 《크고 부드러운 손》에 모아졌는데 대부분 신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들로서, 너무나 완벽하게 기독교의 인간관에 의한 신앙고백적인 것이어서 치열하지 않고 소박하다. 표현에 있어서도 수필적인 것을 시형식으로 나타내거나, 비유를 쓰더라도 단순한 형식에 그치는 예가 많다. 기독교 교리를 나름대로 해석하여 받아들인 정지용이나 회의적인 태도로 받아들인 김현승과는 달리, 박목월은 만년에 이르러 기독교신앙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로 신앙적 서정시를 썼다. 전재동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고백적인 시를 썼는데, 시집 《물의 哲學》, 《겨울까마귀》, 《第三의 創世記》 등을 통하여 시와 신앙의 융합 속에서 구원의 길을 모색하고 참회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 김현승의 시적 태도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박이도는 1959년 신춘문예로 등장했는데 그 이전의 시인들이 신앙을 문학화하는 것과는 달리 시를 신앙의 경지로까지 끌어올리고자 했던 시인으로 평가된다.<sup>8)</sup> 그는 사물에 대한 심상에 영혼을 불어 넣어 언어가 지니는 표상의 아름다움에 치중하였다.

### 3) 1970년대 이후

우선, 지속적으로 기독교시를 써온 박두진, 김현승, 구상의 시경향을 살펴보자. 박두진은 1973년 《使徒行傳》, 《水石列傳》을 비롯한 《野生代》 등의 시집을 계기로 기독교정신에 의한 내면탐구의 상상력을 보여준다. 자신의 체험적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며, ‘수석’을 현상학적으로 관조하면서 시적 체험과 종교적 체험이 융합을 이루고 초월적인 것을 지향한다. 김현승은 60년대의 신 앞에서의 고뇌와 방황을 지나 종교의식이 심화되고 신앙의 길로 들어선다. 시집 《마지막 地上에서》(1975)에 그의 신앙귀의적인 시들이 모아져 있다. 이러한 김현승의 시적 편력은 신앙의 차원이 얼마나 많은 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인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상은 《까마귀》, 《그리스도 폴의 江》 등의 연작시, 《木瓜 옹두리에도 사연이》, 《말씀의 實相》 등의 시집을 1970년대 이후 계속 발표하였다. 예언자적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인간의 고통과 현실적인 악을 신앙적, 윤리적으로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간회복을 위한 기도와 신앙고백을 주제화한다. 박두진과 구상은 아직도 시창작을 계속하고 있어 시세계를 규정 짓기 어려우나 세 시인 모두 궁극적으로 기독교적 이상을 지향하는 것을 보게 된다.

8) 김주연, <한국현대시와 기독교>, (《현대문학과 기독교》, 문학과 지성사, 1984) p.120.

1970년대는 산업사회의 여러 징후들이 나타난 변동기에 해당한다. 현대 시사상으로도 70년대 이후는 변동기에 대응하는 양식으로 내면세계 보다 외부세계에 초점을 두고, 사회의 저항의식, 비판의식, 역사의식 등 외향적 집단 의식을 바탕으로 시세계를 형상화하는 추세 보였다. 기독교 분야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 약자와 피압박자의 구원에 초점을 두는 방신학의 구원관의 영향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에 억압받는 약자에게는 힘이 되어주었고 불의로운 강자에게는 심판으로 그들을 멸한다는 신앙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인간이 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위치를 누리지 못하는 한 복음과 구원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사회의 모순과 착취, 탄압으로부터 불행한 인간들을 해방시켜야 하며 불합리한 사회를 개조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예수를 ‘해방자’의 像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경향 반영한 기독교 시인으로 고정희, 정호승, 김정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70년대에 시 쓰기 시작하면서 강렬한 현실의식과 시대 비판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정호승의 《서울의 예수》, 김정환의 《황색예수전》, 고정희의 《이 시대의 아벨》에서 예수는 신의 아들이라기보다 고통받는 민중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모순된 사회 조를 사랑으로써 대응하는 사회 개혁자로서 표상되기도 한다. 또한 예수의 사랑정신도 민중을 향한 것이며 낮은 곳에 있는 자의 사랑으로 해석하고 있다. 과거 보수적 신학에서 최근 민중신학으로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신이며 동시에 인간인 예수의 성격을 이같이 해석하는 데에서 한국 기독교 시의 현격한 변화를 보게 된다.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시는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는 휴머니즘의 시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제시하는 모랄의 시, 사회적 부조리와 악의 도전에 대응하는 저항시 인간존재의 새로운 의미를 천착하는 내면탐구의 시 등 여러 양상으로 작품화될 수 있는데 한국의 현대 기독교시도 시대와 시인에 따라 그 지향성을 달리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었음을 볼 수 있다. 개인의 차원에서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향한 고뇌와 기도, 신앙고백의 시였다고 하겠다.

한국 기독교시의 이러한 전개과정에서도, 현대 시문학사상으로도 주목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서 한국 현대기독교시의 형성과 토착화에 일정하게 기여한 시인으로 윤동주, 김현승, 박진, 구상 등이 주목된다. 이들은 거의 전시기에 걸쳐 기독교적 주제를 견지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내면적 접맥을 비교적 잘 드러내고 있어, 한국현대시의 위상과 수준을 구체적으로 가늠해 보는 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대상이 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 비교하고 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세계관을 살펴 한국 기독교시의 실상과 지향점, 전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Ⅲ. 대표적 기독교시인의 경향

본장에서는 분석대상으로 택한 네 시인의 주요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여 그것이 표상하는 함축적인 의미를 살피면서 기독교의 사상과 정신이 구현되는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운동주는 광복이전 암흑기동안 짧은 시작활동을 미쳤는데 비해, 나머지 세 시인은 광복 이후부터 본격적인 기독교시를 쓰기 시작했다. 김현승은 1970년 중반 그의 생애와 더불어 시작활동을 마감하였고, 박두진과 구상은 지금까지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 두 시인의 작품은 비교 논의의 편의를 위해 어느 정도 평가가 내려진 1970년대의 시까지로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930년대 및 40년대 초반의 운동주, 60-70년대의 김현승, 광복 후 - 70년대의 박두진, 구상 시의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1. 운동주

##### 1) ‘어둠’과 ‘빛’의 이미지

‘빛’과 ‘어둠’의 心像은 자연의 본성이나 원리 그 자체를 나타내는 원초적 심상으로서, 모든 시인의 작품에서 빈번하게 쓰여지는 기본적인 심상이다. 운동주의 시에는 빛과 어둠, 낮(아침)과 밤의 심상을 매개로 하여 인생의 근본문제를 표상하는 경우가 많으며, 암울한 시대를 맞서는 시인의 자세가 극명하게 드러나기도 하는데, 기독교적 발상에 의한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초한대  
내 방에 풍긴 향내를 맡는다.

광명의 제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재물을 보았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의 생명인 心志까지  
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려 버린다.

그리고도 책상머리에 아롱거리며  
신너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매를 본 꿩이 도망하듯이



은 그의 시에 ‘새벽’, ‘아침’ 그리고 ‘봄’ 등으로 표상되는데, 이러한 빛의 세계야말로 운동주의 삶과 시를 지탱시켜 준 원동력이었으며 동시에 최후의 정신적 보루였다고 하겠다. 어둠에 대한 고뇌를 자기희생으로써 마주 서면서 도래할 빛의 세계를 기다리는 시적 전개는 운동주의의 기본구조라 할 수 있다. 다른 이미지를 통해 이러한 패턴의 구체적 양상을 찾아보자

2) ‘하늘’ 과 ‘별’ 의 이미지

이 이미지는 운동주의 시 전체에 걸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 표상하는 의미가 함축적이며 다양한데, 대체로 궁극적인 이상세계를 표상한다. 기독교에서 ‘하늘’은 무엇보다 하나님 존재하는 곳으로 평화와 은총이 비롯되는 성스러운 공간인데, 운동주의 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하늘공간은 역설적으로 윤리적 자아에 의해 부정적으로 표상되는 경우가 많다.

한번도 손들어 보지 못한 나를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나를

어디에 내 한 몸 둘 하늘이 있어  
나를 부르는 것이오

〈무서운 時間〉에서

어둔 房은 宇宙로 通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또 다른 故郷〉에서

〈무서운 時間〉에서는 내 한 몸 둘 하늘도 없이 죽음을 맞아야 할 비극적 자기 인식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故郷〉에서도 풍화작용하는 목숨의 근원에 대한 절망과 비애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자기인식은 모두 자기의 무력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내 한 몸 둘 하늘’이 존재의 據點이라면, 소리가 들려오는 하늘은 존재의 궁극적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즉,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始源으로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고, “눈물짓다 쳐다보면 부끄럽게 푸르던” 그러한 하늘과 맥을 같이 하는, 궁극적 진리의 세계를 표상하는 심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늘 공간이 순수하고 밝지 못할때 시적 자아는 행동의지를 보이며 대응하는데, “十字架가 허락된다면 // 목아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十字架〉), “어둠을 짓는 개는 / 나를 쫓는 것일게다 // 가자 가자 /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 白骨 몰래 /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또 다른 故郷〉)에서 보면, 어두운 하늘 심상과 더불어 시적 화자는 자기희생을 각오하거나 또 다른 이상향을 지향하는 의지를 보인다. 여기서 궁극적 진리의 세계로서 하늘은

시적 화자의 행동의지를 촉발하는 윤리적 원천이 됨을 볼 수 있다. 운동주시에서 어두운 하늘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대응양식은 ‘별’에 대한 동경과 지향이다. ‘밤’은 어둡고 암울한 상황이므로 ‘하늘’은 심상을 어둠으로 끌고 가지만, 거기에 밤을 전제로 존재하는 ‘별’이 있어 어두운 하늘 심상에 밝음을 부여한다.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는 별의 원초적 심상은 암울한 현실상황 속에서도 이상세계를 동경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sup>10)</sup>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랐던 시인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현실극복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궁극적 이상을 구체적 실천으로 연결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3) ‘바람’의 이미지

바람은 그 속성상 다양한 의미를 표상할 수 있는 심상이다. 어디에로나 불어갈 수 있어 자유로움을 나타내기도 하고, 쉽게 지나가는 것으로서 시간의 덧없음을, 폭풍이 비를 동반해 시련이나 고통을 상징하기도 한다. 대체로 운동주시에 나타나는 바람 이미지는 파괴와 해체작용을 갖는 심상으로 시련이나 고통을 표상하는 경우와, 종교적 심상으로서 계시의 소리를 상징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또 다른 고향>에 나타나는 바람은,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불어 오기도 하고, 어둠 속에서 風化作用을 하기도 한다. 풍화작용을 하는 바람은 곧 해체, 파괴, 시련을 표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늘에서 소리처럼 불어오는 바람’은 의미를 재구성하면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라는 뜻이 되는데, 이 바람은 ‘계시의 소리’ 같은 것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으며,<sup>11)</sup> 자아의 각성을 유발하는 종교적 심상이라고 하겠다. <또 太初의 아침>에는 이와 비슷한 종교적 심상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하얗게 눈이 덮이었고  
電信柱가 잉잉 울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

무슨 啓示일까 ( 1, 2연 )

라고 하고, 이어 ‘罪’를 짓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겠다’고 하여, 종교적 각성에 의해

10) ‘별’과 같은 하늘의 발광체는 N. Frye가 말하는 묵시적 심상으로, 우주의 신성을 갖게 되며, 시대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물리치는 희망, 아름다움, 순수성을 표상한다.

11) 기독교에서 ‘성령’이라는 말은 ‘바람, 생명, 영혼, 입김’ 등 생명의 원동력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원죄의식, 부끄러움의식, 순교자적 희생의식 등을 드러낸다. 이러한 의식은 운동주의 주요 시의식들로서 ‘계시의 소리’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처럼 ‘바람’의 심상은 기독교적인 주제를 보여 주는 시에서는 해체, 파괴의 의미보다 절대자의 계시의 목소리로 표상되는 기독교적 심상이며, 시적 자아의 존재각성을 불러일으킨다.

#### 4) ‘길’의 이미지

‘길’이라는 말은 일상적 의미 속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방법이나 수단, 활동의 방향, 시간이나 공간을 거치는 과정, 신앙의 도리 등 매우 다의적으로 전이되어 쓰이는 일종의 관습적 상징어이다. 운동주의 시에서 ‘길’의 이미지는 시대적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확인하는 심상이라 할 수 있는데,<sup>12)</sup> 그가 지향하는 궁극적 이상이나 생의 방식이 ‘길’로 함축되어 표현된 것이라 하겠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어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길(2.4.6.7연)

〈길〉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나서는 방향을 통해 불가해한 존재의 근원적 본질과 자기 자신의 지상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려는 시인의 의지를 나타낸다. 여기서 ‘길’은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바, 또는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인생지침이나 진리 등의 의미를 내포한다. 표상되어 있는 길은 돌담을 낀 꾸불꾸불한 길로 본질적인 ‘나’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방해를 받는 역경의 길이며, 풀 한 포기 없는 메마른 길로 위안 받을 곳이 없는 고독의 길이다. 또 이 길은 아침에서 저녁, 저녁에서 아침으로 무시간적으로 통해 있다. 공간적으로는 고통의 길이며, 시간적으로는 끝없는 길이 된다. 이러한 길의 표상을 보이는 시로 〈새로운 길〉(“내를 건너서 숲으로 /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 나의 길 새로운 길

12) 마광수, 《운동주의 연구》, (정음사, 1984) p.46.

”), 〈서시〉(“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겠다”)가 있는데, ‘길’이 표상된 시에는 예외없이 시적 화자 ‘나’가 개입하여 어느 누구의 길도 아닌 내가 가야 할 길 임을 드러내고 있다. ‘길’은 내면적 명상과 방향에서 벗어나 험준한 외부상황에 맞서 나아가야 함을 느낀 데서 비롯되어 자기희생을 각오하고 본질적 자아를 성취하는 데로 이른다.

운동주의 시에 나타나는 주요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빛과 어둠의 갈등이 가장 지속적이고 치열하게 나타나 시의식의 기본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았다. 운동주의 어둠은 자아의 불안 정성과 고독감, 정신적 방황에 비롯되는 ‘개인적 어둠’이기도 하고, 조국을 잃음으로써 역사적, 사회적 삶의 자리를 박탈당한 ‘집단의 어둠’이기도 한데, 이러한 개인적 번민과 시대적 고뇌를 하나로 결합하여 대응하는 데서 그의 탁월한 시의식을 볼 수 있다. 암울한 상황을 어둠으로 파악하고 이에 빛을 밝혀 초극하고자 하는데 여기에는 자기희생정신을 수반한다. 빛으로의 초월은 ‘낮’보다 ‘아침’, ‘새벽’ 등 기독교적 종말론의 새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는 미래 지향적 역사의식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예수의 수난과 재림이라는 기독교적 역사관을 추출할 수 있다. 그 밖에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이러한 기본 의식을 구체화하는 심상들이다. ‘하늘’은 자기존재의 궁극적 거점이 되며 존재가 한계상황에 부닥칠 때 스스로를 반추하는 반성적 자아의 대상이 되는데, 하늘 공간에 어둠이 드리울 때 행동의 의지를 보이거나 ‘별’을 상징하여 극복하고자 한다. ‘바람’은 존재의 각성을 불러 일으키는 계시의 소리로 행동의지의 촉발점이 되며 ‘길’은 그러한 행동의지가 구체화되는 場이다. ‘길’은 끝없이 가야 할 고통의 길이며 자기희생을 통해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자기완성을 이루는 데로 이르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운동주의 기독교시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길’을 제외하고는 천상과 지상의 수직적 작용에 의해 전개되는데, 그만큼 초월의 방식도 수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길’에 의해 표상된 수평적 관심은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고 멈춘 느낌인데, 이 점에서 그의 시를 未完의 시라 부를 수 있겠다.

## 2. 김현승

김현승의 시는 자연에의 동경과 예찬에서 출발하여 점차 인간의 영혼문제에 관심을 돌려 자아와 신앙 간의 회의적인 갈등을 겪고 종국에는 기독교신앙으로 귀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의 시는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언어를 많이 쓰면서도 감각적 비유와 분석적인 이미지로 시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의 시에 나타나는 주요 이미지 가운데 자연 또는 사물 심상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 상상력의 패턴과 그의 종교적 세계관을 검토하고자 한다.

### 1) ‘열매’, ‘마른 나뭇가지’의 이미지

김현승은 가을을 소재로 많은 시를 쓰고 있는데, 가을은 대지에 피어났던 푸르름을 저물게

하고 마지막으로 열매 맺게 하는 계절이다. 그의 시에서는 이 열매를 독특한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다. “뜨거운 햇빛과 / 꽃들의 피와 살은 / 단단한 열매 속에 고요히 스며 들 것이다” (〈가을이 오는 달〉, 3연)에서 보는 것처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스며들어 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것으로 열매가 표상되어 확실함이나 영원함에 대한 가치지향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여기서 육체적인 것, 지상적인 것의 소멸은 열매의 견고한 이미지로 보다 가치있는 세계로 止揚되며, 이러한 소멸 이미지는 초월적인 이미지로 전이되어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한다.

꽃이 시들어 열매를 생성하는 구조는 ‘마른 나뭇가지’의 이미지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 “푸른 잎새들이 떨어져 버리면, 내 마음에 / 다스운 보금자리를 남게 하는 / 시간의 마른 가지들 ……” 〈古典主義者〉 1연), 꽃이 시들 듯이 ‘푸른 잎새’들이 떨어져 나간 ‘마른 가지’를 시인은 오히려 ‘다스운 보금자리’라 하여 긍정적으로 표상한다.

내 마음은 마른 나무가지  
 초여  
 나의 육체는 이미 저물었나이다!  
 사라지는 먼뼛 종소리를 듣게 하소서.  
 마지막 남은 빛을 공중에 흩으시고,  
 어둠속에 나의 귀를 눈뜨게 하소서.  
 〈내 마음은 마른 나무가지〉 3연

저무는 가을 풍경을 배경으로 하여, 시적 자아와 자연과의 은밀한 교감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情調에서 자연과 하나로 동화되며 존재의 각성이 열리고 있다. 육체는 사라지고, 비고, 靈的인 것으로 남은 존재론적 각성이 ‘마른 나뭇가지’라는 선명한 이미지로 제시된다. 저무는 시인의 肉身인 양상한 나뭇가지와 同一化 되는 서정적 인식을 환기한다.

## 2) ‘눈물’의 이미지

자연 속에서 ‘꽃-열매’의 관계에 대응되는 것으로 ‘웃음-눈물’의 이미지를 들 수 있다.

더러는  
 沃土에 떨어지는 작은 生命이고저 ……  
 흙도 티도  
 금 가지 않은

나의全體는 오직 이 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눈물〉 전문

꽃이 ‘열매’를 통해 가장 마지막 모습을 매듭지은 것처럼 이 詩人에게 가장 나중 지니인 것은 오직 ‘눈물’ 뿐이다. 화사한 꽃은 웃음과, 열매는 눈물과 각각 대응되는 구조를 보여 주는데, 열매와 눈물은 모두 맨 나중에 생겨나는 結果的이라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눈물’은 일반적으로 젖어흐르는 이미지를 가지는데, 2연에서 보면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이라 하여 堅固性和 倫理性的의 이미지로 표상하여 完全性和 변하지 않는 永遠性을 지향하는 태도를 또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감상적 정조를 배제시키고 견고성을 추구하는 것은 ‘프로테스탄티즘의 경건성에 의지하여<sup>13)</sup> 있기 때문이다. 헤브라이즘적인 금욕주의적 태도는 화려한 꽃이나 웃음보다 열매나 눈물 속에서 인생의 美와 가치를 느끼는 것이다.

### 3) ‘보석’의 이미지

김현승이 우리 시사에 끼친 가장 큰 업적으로는 관념이나 사상을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이미지화하는 표현기법의 탁월성을 들 수 있는데, 관념을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구체화한 예로 ‘보석’을 들 수 있다. ‘보석’은 열매보다 더 굳고 단단하며 스스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결정체로, 그의 시에서 열매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이미지로 제시되고 있다.

나의 가슴에 언제나 빛나는 希望은  
너의 불꽃을 태워 만든 단단한 寶石  
(중략)  
너는 누구의 燃燒하는 생명인가?

13) 김현·金允植, 《한국문학사》, (民音社, 1984) p.279.

너는 아직도 살고 있는 神에 가장 가깝다.

〈빛〉 4,7연

여기서도 ‘단단한’ 보석이라 하여 보석의 견고성을 유달리 강조하고 있는데, 인간의 정신을 빛나는 희망으로 새롭게 하는 빛의 이미지를 이같은 보석에 결부시키고 있다. 빛이 보석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4연 2행에서 보듯 보석이 빛의 불꽃을 태워서 이루어진 결정체이기 때문인데, 보석의 근원으로서의 빛은 “아직도 살아 있는 神에 가장 가깝다”라 하여<sup>14)</sup> 일시적이거나 현세적이기 보다는 영원한 절대적 가치성을 표상한다. 이는 宗教的 信仰과 事物의 탐구가 詩的 感受性으로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인의 상상력의 패턴은 ‘꽃-웃음’, ‘열매-눈물’이 대응되었듯이 ‘보석-빛’이 각각 대응되는 구조를 갖고, ‘열매-눈물-보석’으로 연결되는 이미지 구조를 통해 그의 종교적 상상력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잘 볼 수 있는 시가 〈가을〉이다. 3연은 “꽃잎을 이겨 / 살을 빳던 봄과는 달리 / 별을 생각으로 깎고 다듬어 / 가을은 / 내 마음의 寶石을 만든다.”로 되어있다. 이 시는 ‘봄-땅-살’과 ‘가을-하늘-생각’으로 대구를 이루고 있어,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지상적인 것과 천상적인 것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자연에서의 열매가 시인의 마음 속에서는 보석으로 대치되었다. 자연에 있어서는 ‘열매’가, 인간(시인)에게 있어서는 ‘눈물’, 사물에 있어서는 ‘보석’이, 시에 있어서는 ‘언어의 뼈마디’가 지상에서는 최대의 아름다움을 지닌 가치체로 표상된다. 이렇게 ‘열매’, ‘눈물’, ‘보석’ 등은 모두 관념의 객관적 상관 물이 되어 다양하고 풍요로운 초월적 이미지의 세계를 형성한다.

#### 4) ‘재’의 이미지

‘재’의 이미지는 사물을 태우고 남는 것이라는 맥락에서 ‘열매’, ‘눈물’, ‘보석’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김현승 시에서 이 ‘재’의 이미지는 계절의 끝이라 할 수 있는 겨울과 태움, 불꽃, 어둠(밤)의 이미지들을 배경으로 하여, 그의 종교적 상상력의 패턴이 어떤 세계관에서 연유된 것인가를 시사해주는 중요한 이미지로 제시된다. 재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불꽃으로 타고 남은 것으로, 地上에 남아 있는 事物性의 最後 精髓이며 가치체이다. (〈참나무가 탈 때〉). 그렇기 때문에 시적 자아도 ‘재’로 남고자 한다.

나는 무엇보다 재로 남는다.

바람만 불지 않으면 재로 남는다.

무덤도 없는 곳에 재로 남아

14) 성서에서도 보면 이 ‘빛’의 이미지는 흔히 절대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나를 무릅쓰고 호올로 엮드린다.

〈四行詩〉 끝연

‘재’의 이미지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物自體의 의미를 가지며, 시적 화자는 ‘무엇보다 재로’ 남고자 한다. 그러나 재의 존재성은 無風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만일 영원히 바람만 불지 않는다면 재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시인이 지향하는 초월적 세계는 ‘재’를 통해서 성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는 ‘바람’에 날려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事物의 有限性的의 本來的 인식에 다다르게 된다.

나는 나의 재로  
나의 모든 허물을 덮는다  
나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나는 한줌의 재로 덮고 간다.

그러나 까마귀여,  
녹슨 칼의 소리로 울어다오.  
바람에 날리는 나의 재를  
울어다오.

나의 허물마저 덮어주지 못하는  
내 한줌의 재를  
까마귀여,  
모든 빛깔에 지친  
너의 검은 빛-통일의 빛으로  
울어다오

〈재〉 전문

시적 화자는 ‘재’를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표상하고자 했으나 ‘바람’에 의해 無化되고 만다. 자기의 존재성이 재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한계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리하여 ‘재’의 유한성을 초월하는, 즉 飛翔性的의 대상으로 ‘까마귀’ 이미지가 나타난다. 이 까마귀의 출현으로 그의 상상력은 다시 한번 굴절, 심화된다.

##### 5) ‘까마귀’ 이미지와 상징성

김현승시에 나타나는 까마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일반적 原型心像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독교적 세계관에 접맥되어 독특한 個人的, 시적 심상으로, 그의 종교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 이미지로 등장한다.

휠라이트가 말하는 “한 시인의 상징적 삶과 그의 실제 생활에 대하여 지속적인 활기를 불어넣고 타당성을 가질 뿐 아니라 시 작품 속에서 다양한 형태를 취하여 수시로 반복해 나타나는” 개인적 상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겨울 까마귀 찬 하늘에  
너만은 말하며 울고간다!

목에서 뺏다  
살에서 터지다  
뼈에서 우려낸 말  
중에서도 재가 남은 말소리로  
울고 간다.

〈산까마귀 울음 소리〉 2,3연

다른 새의 울음은 ‘소리’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지만 까마귀는 ‘말하며 울고가는’ 새로서, 그 울음의 이미지를 구체적 사물을 빌려 ‘살-뼈-재’로 의미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4연에서는 ‘내 뼈속의 언어로 울고 간다’고 하여 까마귀 울음소리와 시인의 언어를 同一化하고 있다. 그래서 까마귀는 시인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희망의 상징이며, 救援의 언어를 말하는 새가 된다. 〈겨울 까마귀〉에서 까마귀는 이제 영혼을 표상하는 새로서, 十二月에 ‘굳은 책임에 뿌리 박힌’ 나의 마른 나무가지(종교적 실존) 위에 앉아 구원의 소리로 온다. 저물어 가는 지상의 모든 것은 검은 빛 속에 품고 영혼의 소리로 온다. 결국 까마귀는 시인의 저무는 마른 나뭇가지 끝에서 유한한 존재로서의 시인의 비극적 세계를 울며 날아가는데, 시인의 영혼은 까마귀가 되어 天上으로 飛翔한다.

산까마귀  
긴 울음을 남기고  
地平線을 넘어갔다.

四方은 고요하다!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넋이여, 그 나라의 무덤은 평안한가

〈마지막 地上에서〉 전문

까마귀는 시인의 고독과 소멸하는 것의 아름다움과 아픔을 지닌 채로 지상의 끝(지평선)

을 넘어 영원한 초월의 세계, 구원의 세계에 다다를 것이다. 시인이 지향해오던 초월적 정신의 추구는 ‘초월의 빛’을 두른 영혼의 새 ‘까마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까마귀는 시인이 꿈꾸던 永遠의 세계를 향해 날아가는 ‘지상적 초월의 새’의 상징이다.

지금까지 김현승시의 중심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열매’, ‘마른 나뭇가지’, ‘눈물’, ‘보석’, ‘재’ 등이 암시하는 의미와 ‘까마귀’의 상징성을 분석하고, 이들의 유기적 관련성을 통해 그의 시적 상상력의 패턴과 기독교적 세계관이 어떻게 시작품으로 형상화되었나를 고찰하였다. 그의 초월지향의 정신은 현상적 존재의 소멸성과 견고성, 그리고 飛翔性을 통해 다양하게 심화되어 갔다. 그 결과 자연의 유한성과 소멸성을 통해 초월지향의 정신이 창조적 상상력에 의해 영원한 존재성을 암시하고 상징하는, 고통스럽고 아름다운 이미지의 세계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 3. 박두진

박두진은 오랜 기간 동안 다채로운 시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70년대까지 전개된 시적 편력은, 《청록집》(1946), 《해》(1949) 등 광복 전의 초기시, 《午禱》(1953), 《거미와 星座》(1962), 《人間密林》(1963), 《하얀날개》 등의 중기시, 《使徒行傳》, 《水石列傳》(1973), 《續水石列傳》(1975), 《野生代》(1978) 등의 후기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의 시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거의 자연 이미지들로서 다양한 자연이 시기에 관계없이 다채롭게 나타난다. 그 가운데에서도 ‘산’, ‘해(빛)’, ‘바다’ 등 일반적인 자연물이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나며, 2인칭 ‘너(당신)’도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미지이다. 이들 이미지가 표상하는 바의 의미체계를 살펴 박두진 시인의 상상력의 특징을 살펴보자.

#### 1) ‘산’의 이미지

‘산’은 박두진의 초기시의 자연 배경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초기시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雪岳賦〉, 〈靑山道〉, 〈山아〉, 〈道峰〉 등은 山 자체를 시적 대상으로 삼은 것들이다. ‘산’에 대해 시인 자신은 “시인이 처한 현실적 상황에 대한 절망적 인식과 그 상황의 어두움을 넘어선 미래적 희망을 산이라는 자연공간을 통해 형상화한 것이다.”<sup>15)</sup> 라고 한다. 〈道峰〉에서는 “산새도 오지 않고 구름도 떠가 버린” 텅 빈 산의 정경이 적막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시인 자신이 이 시에 대해 “당시의 적막감과 고독감, 호젓한 영혼의 도사림과 잃어버린 것에 대한 渴慕를 가을산의 서정으로 노래한 것”이라 했듯이, 이 시의 산은 시인이 처한 현실적 상황과 양태를 집약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시인의 이러한 인식은 〈香峴〉에

15) 박두진, 초기시의 주변(청록집), p.198.



서 제시되는 온갖 초목과 짐승들이 사람과 어울려 지내는 평화로운 정경의 시간을 회귀했다. 그 평화로운 축복의 시간이 신의 공간표상으로 전환되어 표상된 것이다. 박두진시의 산 공간에 보이는 미래의 평화로운 삶에 대한 기다림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인간이 자연과 하나가 되어 신의 창조물로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은 〈창세기〉의 에덴동산의 순결한 공간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기다려도 좋으랴?”라고 의문형으로 표출되어 있어, 평화로운 세계가 도래한다는 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기독교적 평화에의 갈망을 기초로 하여 환희와 축복으로 가득찬 山은 자연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기독교적인 이념이나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를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 기독교에서의 山은 神의 음성과 접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인데,<sup>16)</sup> 그러한 기독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山도 아니다. 자연으로서의 산은 단지 인간현실의 문제를 말하기 위한 도구 정도의 의미밖에 지니지 못한다. 그리고 박두진의 이같은 기다림은 그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며, 기다리는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음은 초기시의 한계로 지적된다.<sup>17)</sup>

## 2) ‘해(빛)’의 이미지

박두진은 ‘빛의 시인’이라고 불릴 만큼<sup>18)</sup> ‘빛’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주었다. 시인 자신은

빛은 실로 나의 가장 卑近한 욕구인 동시에 가장 높고 절실한 悲願의 實體이며, 시의 根源이라 아니할 수 없다. 빛의 핵심, 빛의 상징성, 빛에의 회원은 내 시의 테마의 핵심이며, 내 사상을 구상화한 바로 그 本體라고도 말할 수 있다. 빛의 이미지 곧 내 사상하는 바의 집약적인 중심체요, 빛의 중심체는 곧 내 생명욕구의 전부의 한 비유요 상징이다.<sup>19)</sup>

라고 술회한 바 있는데, 그의 시에 있어서 모든 심상은 이 ‘빛(해)’을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여 ‘빛(해)’가 없는 다른 심상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을 정도이다.<sup>20)</sup> 그의 시에 ‘해(빛)’의 심상이 나타나는 시구를 보면,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장

16) Eliade, M., 李東夏 역, 《聖과 俗》(학민사, 1983), pp.19-20.

17) 김인환, 《문학과 문학사상》, (열화당, 1979), p.160.

18) 오동춘은 〈빛의 시인 박두진론〉(연세어문학 9.10 합집, 1977.6)이란 제목으로 시인론을 전개한 바 있다.

19) 박두진, 《한국현대시론》, (일조각, 1974), pp.45-46.

20) 이운룡, 《박두진 시에 나타난 기독교 정신》(白鹿語文 3.4 합집, 1987.5), p.153.

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해>), “퇴어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靑山道>), “언제 터질 그 찬란한 아침” (<年輪>), “햇별살 따실 때에 나를 와서 안아라” (<햇별살 따실 때에>) 등과 같이 ‘해’ 자체나 ‘빛’의 뜻이 직접 표면에 서술되어 있기도 하고, “나는 하늘을 마신다” (<하늘>), “일제히 인류가 합창을 부르는 날” (<장미의 노래>)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해’의 속성이나 이미지를 내포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두 밝고 기운찬 地上의 경이와 생명의 희열을 노래한다. ‘해(빛)’의 심상이 표상하는 바는, 역사적 재생인 조국의 광복이나 광명, 이상주의적 세계, 메시아의 再臨, 궁극적인 가치와 생명의 세계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러한 ‘해’ 심상은 후기로 오면 불굴하는 生命力, 永遠을 지향하는 삶의 의지, 그 어떤 不義에도 맞서 싸우려는 투쟁정신을 표상하기도 한다.

하나의 티도 없이  
 열룩집도 없이  
 순수가 안에 타는  
 꿈의 응어리,  
 하나씩의 햇덩어릴  
 쏘아 올려라

<아침파도, 내일>에서

이러한 ‘해’의 심상을 통하여 시인은 해처럼 뜨겁게 사는 삶, 매일 소생하고 새로워 지는 삶, 자신을 불태우면서 타인에게 봉사하는 삶,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영광을 되돌리는 삶의 자세 등을 지향한다.

### 3) ‘바다’의 이미지

박두진의 여러 자연 이미지 가운데 ‘바다’는 가장 다양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주론적, 종교적 관점에서는 “바다는 실질적인 전우주를 상징한다. 그것은 존재의 모든 잠재능력의 저장소이다. 모든 형태가 그로부터 이루어지며 모든 창조가 그로부터 야기된다.”고 본다.<sup>21)</sup> 그래서 바다는 삶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정서와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심상이 된다. 박두진 시에서도 여러가지 상반된 의미를 표상하고 있어 죽음과 창조, 동경과 두려움, 평화와 혼돈 등 양면성을 드러낸다.

㉠ 왔다가 가는 물결 도루 그리워, 어어이 소리 높여 불러보아도  
 바다는 내 소리를 들은 척 않고, 바다는 멀리로 달아만 간다.

<바다 1>에서

21) 朴好泳·李崇源, 《한국 문학의 비평적 탐구》(三知院, 1985), p.268 재인용

바다는 누군가 바다에는 누가 사나. 바다에는 누가 살기 날 이리  
닿게 하나

〈海愁〉에서

- ㉠ 햇살 함박 받고,  
푸른 물 위로 밟으며 오는  
당신의 바닷길 ……

〈바다2〉에서

바다가 그리움도 그대 때문에, 바다가 그리움도 그대 때문에  
〈海愁〉에서

- ㉡ 아가야 너는  
……

저, 검푸른, 죽음들을 안고 있는,  
바다가 파도메가 안 무서우냐?

〈바다와 아기〉에서

그리하여 그 죽은, 죽음으로 더불어 영원히 죽고, 이제는 그 생명이 또 하나 솟아 오르  
는 새로운 생명을 위하여……  
새로운 그 출렁임을 시작한 것이다.

〈바다의 靈歌〉에서

㉠에서는 시적 화자의 바다에 대한 그리움, 동경 등을 표상하고 있는데, ㉡에서 보면, 그 그리움은 푸른 물 위를 밟으며 오는 ‘그대’ 때문이라고 한다. 바다를 하나의 길로 생각하고 그 위로 걸어간다는 것은 성서에 나타난 상상력으로, 결국 바다란 초월자의 능력이 행하여진 공간이며, 그 공간을 동경하는 시적 자아 역시 초월을 지향하는 것이 된다. ㉡에서는 ‘두려움과 새 생명 창조의 바다’를 보게 된다. “싸움배 잡아먹은” 바다가 일종의 정화작용을 의미하며, 자연에 의한 정화는 인간에게 있어 때로는 죽음을 뜻하여,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바다는 어떤 유의 형태든지 드러낼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어 새로 태어남과 다시 산다는 의미를 표상하게 된다. 결국, 박두진 시의 ‘바다’는 ‘산’과 더불어 초월을 지향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4) ‘너(당신)’의 이미지

박두진의 시에서는 ‘너’, ‘당신’과 같은 2인칭의 존재를 많이 등장시키고 있는데, 특히 水石詩에서는 거의 빠짐없이 이러한 이미지가 등장되고 있다. 그의 시에 있어서 ‘너’의 쓰임에 대한 시인 자신의 진술을 보면<sup>22)</sup>

- ㉢ 인간적, 윤리적 人稱의인 ‘너’일 경우가 있다. 비유와 상징으로 자연, 인간, 사상,이

22) 박두진, 兮山詩話 5,《현대시의 이해와 체험》,(일조각, 1976), pp.167-171.

념, 종교적인 신앙대상일 수 있다.

- ㉠ 인간적인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너’가 가장 비근한 예라면, 구세주나 하느님, 종교적인 대상으로서의 至尊者를 가리킬 때가 가장 높은 예가 될 것이다.
- ㉡ 안이한 타협이나 저항의 포기가 아니라 끝까지 모색하고 높이고 거르고 응결시키고 상징하고 하여 그 자체의 至高至純한 대상, 그러한 시적 체험의 최고의 초점으로 ‘너’를 쓰게 되는 것이다.
- ㉢ ‘너’를 찾고 찾으려 하면, ‘너’를 파고들고 ‘너’를 부르고 부르려 하면, 그것은 바로 다른 아닌 ‘나’가 되고, 나 자신을 파고들고 응시하고, 그 내적 욕구를 응시해 보면, 그것이 바로 ‘너’라는 이름, 바로 ‘너’로서 나타난다.

라고 하였다. ㉠은 단순한 뜻으로 ‘나’와 대칭으로 쓰는 경우와 어떤 대상 자체를 응결시켜 상징이나 이미지로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은 그 구체적인 예가 될 것이다. ㉢에서는 시인의 시정신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은 자신의 또 다른 분신, 곧 내적 욕구를 객관화시켰을 때 그것이 바로 ‘너’가 된다는 것이다. 시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품에 나타난 ‘너’의 이미지가 표상하는 바를 고찰해 보자.

나는 왜 너를 알 수 없니?

멀리서 멀게 너를 바라보아도  
가까이서 가깝게 너를 바라보아도

(중략)

내가 순간을 생각할 때  
너의 영원을  
삶에는 죽음  
죽음에는 살음을 생각하는

(중략)

왜 갈수록 이렇게  
너를 나는 알 수 없니?

알 수록 참으로 알 수 없니?

〈뷔너스, 아득한 立體의 灰色山〉에서

언젠가는 네가 나로 나의 안의  
 햇덩어리,  
 내가 너로 언젠가는 달덩어리되어,

살고지고 한 몸뚱어리  
 불멸이게 하렴

〈너의 삶〉에서

위의 例詩들은 水石詩에서 뽑은 것들이다. 시인이 진술한 ②의 ‘너’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에 드러난 문맥만으로 너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를 알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시적 화자가 ‘너’를 알고 싶어하고, ‘너’와 同身一體가 되고자 하는, ‘만나면’ 자신의 내적 욕구가 이루어지는 존재로 상상될 뿐이다. 水石詩의 대부분이 대상을 추상관념으로 표현하여 이미지로 부각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점은 모처럼 內面探究의 詩인 水石詩의 한계라 하겠다. 그러나, 박두진시에 나타나는 ‘너’는 대부분의 경우 絕對存在로 나타난다. 〈午禱〉에서 보면, “당신은 나의 힘/당신은 나의 主/당신은 나의 生命/당신은 나의 모두 ……”라고 한다. 또, 〈자장가〉에서는 “나를 부르는 어디에서나 당신의 소리, 멀디멀은 어디에서나 당신의 소리, 대답이 없는 어디에서나 당신의 소리”라고 하여 절대자를 표상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午禱〉에서는 시적 자아를 초월하게 할 수 있는 경배대상으로, 〈자장가〉에서는 無所不在하는 절대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절대자로서 ‘당신’이 구체적인 실재성을 띠고 나타나는 경우가 ‘예수’이다. 〈갈보리의 노래 2〉의 일부를 보면, “마지막 내려 덮는 바위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뜨물 같은 恥辱을 불붙는 憤怒를, 에어내는 悲衰를, 물새 같은 孤獨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가 있었는가?”로 되어 있는데, ‘예수’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초월한 자로, 시적 화자의 정신적 갈망과 염원의 대상이 된다.

이상과 같이 박두진 시의 주요 이미지로, ‘산’, ‘해(빛)’, ‘바다’, ‘너(당신)’ 등을 살펴보았다. ‘산’을 매개로 하여 현실에 대한 절망적인 인식과 미래적 희망을 표출하였고, 그의 핵심표상인 ‘해(빛)’는 주로 再生의 光明을 표상하는 것인데, 초기 이후에는 불의에 맞서는 불굴의 정신을 드러내기도 한다. ‘바다’는 다의적이면서도 양면적인 뜻을 드러내는데, 궁극적으로는 ‘산’과 더불어 초월의 공간을 표상한다. 관념이미지 ‘너(당신)’는 존재의 내면적 욕구를 드러내는 심상으로, 절대자를 표상하면서 시적 화자의 초월의지를 내포하는 심상이다.

## 4. 구 상

구상은 1947년 월남한 이후 오늘날까지 40여년 동안 〈焦土의 시〉, 〈밭日記〉, 〈그리스도 폴의 江〉, 〈木瓜 응두리에도 사연이〉 등 대부분 연작시를 중심으로 작품활동을 해오고 있다. 연작시를 쓰는 것은 ‘존재의 무한한 다면성’이나 ‘내면적 복합성’을 인식하고 조명하기 위해서 라고 시인은 진술하고 있는데,<sup>23)</sup> 이 연작시에는 수사학적 비유나 기교가 없이 신념이나 사상을 평이하면서도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다. 그래서 연작시에서 그의 주요 이미지를 추출하기 보다 연작시의 시적 대상을 주요 이미지로 삼아 고찰하고자 한다. 1960년대의 〈밭日記〉, 1970년대의 〈까마귀〉, 1980년대의 〈그리스도 폴의 江〉 연작시를 대상으로 각기 ‘대지(大地)’, ‘까마귀’, ‘강’의 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1) ‘대지’의 이미지-〈밭日記〉

〈밭日記〉는 1965년부터 초고를 작성, 1967년 1월부터 연재를 한 총 101편의 연작 장시이다. 저자의 술회에 의하면, 광복 후 그가 너무나 현실참여에 행동적으로 기울어져 자신의 삶이 문학작업에서 이탈될 것을 깨닫고, 시창작에의 전념과 복귀를 위해 자기 훈련 삼아 인간의 원초적 삶의 터전인 ‘밭’에다가 상념을 집중시켜 본 것이라 한다. ‘밭’을 ‘인간의 원초적인 삶의 터전’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 실제로 밭은 생명이 자라는 터전이자 인간 생존의 현장이 된다. 이 작품에서 시인은 대지로서 흙과 땅, 밭, 그리고 국토를 표상하고 있다.

威鏡道 三水甲山  
 火田 감자밭엘 가끔 내려와  
 뒤져놓고 망쳐놓던  
 곰 너 너석이  
 로스켄가 胡人들의  
 따발총에 물려서  
 太白山脈을 타고  
 小白山脈을 타고  
 智異山도 春香이가 살았다는  
 南原 양지 바지쪽 골짜기에  
 얼마만에 風便에 또 듣자니까

23) 구상, 〈나의 詩作態度〉, (詩와 意識 제 5집, 1975), p.19에서 그가 연작시를 쓰는 이유에 대해 소상하게 밝힌 바 있다.

서울 昌慶苑엔가  
鐵窓 속엔가 갇혔다더니

예시한 시는 작품 19의 전반 부인데, 국토의 모습이 한꺼번에 요약되어 들어 있다. 곶의 공간이동을 통해 높고 낮은 국토의 구석구석을 조망하고 있다. 그가 ‘밭’을 ‘관입실재(觀入實在)’ 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형상은 생성과 소멸이 교차되며 현실과 역사의 변환이 펼쳐지는 공간이다. 밭을 구심점으로 하여 生命의 生成과 消滅의 과정 및 그 승화의 경이로움을 형상화 하는가 하면, 인간의 현실적 조건과 역사적 변환이 다채롭게 전개되는 양상을 형상화 하기도 한다. 이러한 형상화를 통해 생성과 소멸이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는 생명 본체의 움직임, 민족분단의 체험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의 재조명, 無明과 허무의 초월세계로의 승화, 과학문명에 대한 종말의식, 전통적 토속미에 대한 가치인식 등을 드러낸다. 이러한 표상의 근저에는, “기독교적인 것을 그대로 긍정적으로,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독교적인 것에 대한 갈등과 상충, 그리고 그것의 구현”을 문제삼는다는 구상 시인의 기독교적 인간관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하여 생성과 소멸이 새로운 창조로 이어지고 모순과 갈등이 화해로 수용되게 만든다.

## 2) ‘까마귀’의 이미지

〈까마귀〉는 70년대 산업화 사회 속에서 쓰여진, 10편으로 된 연작시이다. 시인 자신은 시대상황이 물질주의, 기능만능의 현실주의로 치닫고 있는 인간 소외의 정신에 대한 경고와 비판을, 靈의으로 불길하게 인식되고 있는 까마귀로 寓喩하여 표현함으로써, ‘신령적 예지와 경보의 사명’을 다하고자 이 연작시를 쓴 것이라고 한다.<sup>24)</sup> 그리하여 ‘까마귀’는 시인 자신이며, 어둠의 실체이며, 예언자이며, 구원의 使者로 표상된다.

나는 비탈산, 거친 들판을 헤매면서  
썩은 고기와 죽은 벌레로 배를 채우면서  
終身誓願의 苦行修道 하는 새다

까옥 까옥 까옥 까옥

너희는 영혼의 간구와 涕泣으로  
영영 잠겨버린 나의 목소리가  
불길을 돌아온다고 오해하지 말라.

24) 구상,〈나의 文學, 나의 詩作法〉, (現代文學, 통권 342호, 1983.6), p.140.

## (중 략)

오늘도 나는 북악허리 고목가지에 앉아  
 너희의 눈 뒤집힌 세상살이를 굽어보며  
 저 요르단 강변 세례자 요한의  
 그 예지와 진노를 빌어서 우짚노니

〈까마귀 3〉에서

불길한 이미지를 주는 ‘까마귀’를 세례자 요한의 광야에서의 외침과 적절히 대응시켜 시대의 不義로움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까마귀의 울음은 다가올 시대의 절망을 경고하는 지친 영혼의 소리이며, 지상의 고민이며, 통곡의 부르짖음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세례자 요한의 ‘예지’와 ‘진노’는 각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마태복음〉 3:2)와, 위선을 일삼는 사람들(바리새인, 사두개인)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마태복음〉 3:7-8)는 경고와 권고라 하겠는데, 시인은 자신을 까마귀로 대체시켜 이 시대의 불의와 타락한 사회에 대해 멸망을 예고하며 진리대로 살아가라고, 세례요한의 예언자적 부르짖음으로 깨우치고 있다.

어느날 저녁 나의 작은 까마귀 한마리가 허청허청 찾아왔다.

까옥 까옥 까옥 까옥

그는 거의 언덕바지에 있는 神의 무덤에 나가 앉아서  
 한나절 울다가 오는 길이라면서 목이 좀 쉬어 있었다

〈까마귀 6〉에서

이 시는 타락해가는 오늘날의 敎會를 우화적인 기법으로 비꼬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sup>25)</sup> ‘神의 무덤’이라는 시키에서 그러한 유추가 가능하다. 신앙이란 형식이나 율법이 아니라 생활이요 그 결실이어야 함에도 위선과 타협으로 타락해 가는 현 세태를 개탄하는 것이다. 이 까마귀는 시대적, 종교적 구원자로서 깨끗한 양심과 진실한 신앙의 삶을 추구한다. 구상 시의 까마귀는 요전대 정의의 입장에 서서 예언과 경고의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시인의 새로 볼 수 있다.

## 3) ‘江’의 이미지

구상 시에 나타나는 江은 자연적 공간에 머물지 않고 사색과 관조로써 우주의 질서를 파악

25) 신익호, 전계논문, p.160.



하며 인간의 본질을 밝히는 존재 탐구를 이루는 심상이다. 이 연작시는 구상에게서는 이례적으로 자연과의 교감을 보이기도 하는 작품이다.

아침 강에 안개가  
 자욱 끼어 있다.  
 彼岸을 저어가듯  
 太白의 허공 속을  
 나룻배가 간다  
 기슭 白楊木 가지에서  
 까치가 한마리  
 요란을 떨며 날은다  
 물밀의 모래가  
 여인네의 속살처럼  
 맑아온다  
 잔고기 뼈들이  
 生來의 즐거움으로 노닌다  
 黃金의 햇살이 부서지며  
 꿈결의 꽃발을 이룬다  
 나도 이속에선  
 밥먹는 짐승이 아니다

〈江 1〉 전문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현실적, 역사적 의미에 젖은 인간이 아니라 自然의 일부로서의 인간이다. “나도 이 속에선 / 밥먹는 짐승이 아니다”라는 맨 끝연에서 자연과의 교감에 들어선 시인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구상은 이러한 자연교감을 통해 존재에 대한 인식추구를 보여준다. 시인 스스로 “生成과 消滅이 잘 눈에 띄지 않는 江에다 存在와 그 實在에 대한 認識을 추구하려 했다.”<sup>26)</sup> 고 술회한 바 있다.

저 산골짜기 이 산 골짜기에다  
 肉身의 허울을 벗어  
 흙 한줌으로 남겨 놓고  
 死者들이 여기 흐른다  
 그래서 강은 웃 인간의  
 渴願과 嗚咽을 안으로 안고 흐른다

26) 구상, 《具常連作詩集》, (詩文學社, 1985), p.2-3.

나도 멀지 않아 여기를 흘러가며  
 지금 내 옆에 앉아  
 낚시를 드리고 있는 이 막내애의 그 아들이나  
 아니면 그 손주놈의 무심한 눈빛과 마주치겠지?

〈江 10〉에서

이 시에서는 ‘永遠한 時間’과 ‘自我’의 조응을 볼 수 있는데,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강물의 흐름 속에서 현존재를 인식하면서 죽은 후에라도 다시 現身 하리라는 영원불멸에 대한 확신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상의 근거에는 다음과 같은 시인의 사유가 있었다. “실상 우리가 죽어 묻힌 뒤 그 시체의 부분은 다 빠져 무덤 밑을 스며나와 강으로 흘러 내릴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蒸化한 수분은 轉生을 거듭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강은 단순한 물일 수가 없다. 나는 기독교 부활의 그날도 江을 놓고 이렇게 그려보는 것이다.” 이 연작시의 마지막에서는 “그리고 어느날 이 자리에 / 또 다시 내가 讚美만의 모습으로, 앉아 있겠지” 라고 하였는데, 시인 자신은 여기서의 찬미는 “부활과 영원에 대한 애착”이었다고 한다.<sup>27)</sup> 이 같은 표상은 영원 속에서의 현존을 응시하고 죽음과 재생을 통해 영원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인의 시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상의 ‘江’의 세계는 시간과 영원과의 관계, 역사와 존재와의 관계를 형이상학적으로 추구, 근원적 진실에 도달하려는 명상의 세계라 하겠다. 이 ‘강’은 세속적인 시간의 차원을 떠나 현재로 존재하는 영원 자체이며, 육신과 영혼, 유한과 무한 등이 함께 화해의 장으로 공존한다. 이상과 같이 구상의 주요심상으로써 ‘大地(밭)’, ‘까마귀’, ‘강’ 등이 표상하는 바의 의미를 개괄적으로 검토해보았는데, 그는 실존적인 삶의 모순과 불의에 대해 고민하고 책임을 느끼면서 삶과 죽음의 참뜻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투시, 존재의 근원을 밝히려고 애쓴 시인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네 시인 시작품을 주요 이미지가 표상하는 의미분석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분석대상 이미지를 제한하고 그 대체적인 의미를 밝혀 보는 데 그쳐 심도있는 총체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시인이 빈번하게 혹은 지속적으로 시에 등장시킨 심상에서 확인되는 시적 태도, 시정신 등이 기독교적인 것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가를 찾아 보고자 한 것이다. 운동주의 기독교의식은 현실에 대한 내적인 대응수단이었다고 하겠는데, 빛과 어둠의 갈등이 치열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나 시의식의 기본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 어둠은 개인적인 어둠이기도 하고 동시에 민족적 어둠이기도 한데 시적 자아의 희생정신으로 수렴되어 빛의 세계를 확신하는 미래지향적인 탁월한 역사의식을 보여주었다. 김현승에 있어서 기독교의식은 개인적인 존재 탐구와, 지상적이고 소멸하는 것으로부터 영원하고 초월적인 것에 대한 가

27) 구상,〈나의 문학, 나의 詩作法〉, p.142.

치지향이라 할 수 있다. 일련의 견고한 이미지와 ‘재’, ‘까마귀’ 이미지의 유기적 관련성을 통해 그의 독특한 종교적 상상력의 패턴을 보았는데, 그의 초월 정신은 현상적 존재의 견고성과 소멸성, 그리고 飛翔性을 통해 심화되고 있음을 보았다. 자연의 유한성과 소멸성을 통해 초월을 지향하는 정신은, 영원한 존재성을 암시하고 상징하는, 고통스럽고도 아름다운 이미지의 세계를 이루어놓았다. 박두진의 경우는 자연을 통해 기독교적 이상을 추구하는데 그의 시는 개인의 윤리적 이상과 함께 민족적 집단의 구원의 열망으로 표현된다. 시에 자주 나오는 ‘너(당신)’나 기타 自然 이미지들은 주로 절대자 神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들 심상을 통해 당시대적, 대사회적, 인생론적 이상과 미래지향적 구원을 역동적으로 호소한다. 구상은 카톨릭시즘을 바탕으로 하여 역사와 인간의 존재문제를 추구하였는데, 인식의 확대를 의도하고 쓴 일련의 연작시는 역사의 부조리와 존재의 비극성에 대해 예언자적 자세로 고민하고 책임을 느끼면서 삶과 죽음의 참뜻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투시, 존재의 근원을 밝히고자 하였다.

## 5. 종합적인 검토

이상과 같이 네 시인의 주요 이미지를 중심으로 그 표상하는 바의 의미를 고찰하여 그들의 기독교적 시정신과 상상력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 보았다. 이들 시인들은 모두 한국문학사에서 기독교 사상을 시정신의 근저로 하고 있지만 그것의 시적 형상화에 있어서는 약간의 방법적 차이를 보여준다. 본 장에서는 이들 시인의 특징적인 면모를 自然(事物) 수용, 대 사회·역사관, 종교적 구원에 대한 의식 등을 대상으로 하여 대비, 고찰하고자 한다.

### 1) 자연관

시인이 자연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수용하였으며, 그것을 자신의 心情表出이나 詩想 전개에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시인의 종교적 상상력의 패턴이 어떤 세계관에서 연유되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연관에는 1) 자연은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과, 2) 자연이 그 존재를 위해 자연 그 자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한다고 보는 두 가지 관점<sup>28)</sup>이 있을 수 있는데, 기독교적 자연관은 후자의 유형에 해당하며, ‘다른 그 어떤 것’을 神(하나님)으로 볼 수 있다. 즉,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자연은 신의 피조물이며, 자연 그 자체는 절대적 도그마의 個個의 表象으로서, 신성한 존재가 된다. 자연을 ‘그 자체로서 총체성을 형성하는 하나의 관념체계’로 보는 동양적 세계관에 입각, 자아와 세계 사이의 완전한 同一化를 지향하는 우리의 전통적 自然詩觀과

28) 김준오, 《시론》, (문장사, 1982), p.32.

는 달리, 기독교의 시인은 자연 속에서 절대자의 모습과 그 섭리를 드러내는 자가 된다. 특히, 박두진은 이러한 서구의 기독교적 자연관을 충실하게 드러내는 시인이다. 여기서는 김현승의 자연관과 대비하여 현대시에 나타나는 기독교적 자연관의 두 방향을 살피고자 한다. 박두진은 미래에의 희망이나 현실극복의 의지를 나타낼 때 항상 자연의 형상과 결합시켜 표현하고 있는데, 자연 자체의 정경이나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속성을 진술하거나 열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갈망과 염원을 드러낸다. 특히, 초기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인 ‘산’은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대립하지 않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로 조화를 이루어 시인의 미래의 이상과 희망을 펼치는 구원의 대상으로 기다리는 공간이 된다. 현상학적 관점의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석을 대상으로 한 후기시에서는 절대자의 섭리로서 자연의 질서를 추구한다. 그래서 그의 자연은 자연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기독교적 이념이나 인간의 존재론적인 의미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자연수용은 개개의 자연의 모습을 통해 창조주의 모습을 드러내는 전통적인 서구 기독교의 세계관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현승에 있어서도 자연이나 사물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추구하고 있는 사상이나 관념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있다. 시인 자신이 “나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에다 어떤 주관적인 해석을 가하고 주관에 의하여 변형시키기를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나는 동양적이 아니고 서구적이다”<sup>29)</sup> 라고 한바, 그의 자연은 卽物的 自然이 아니라 主觀에 의해 새로운 차원으로 변형시킨 이미지로서의 자연이다. 그는 자신의 관념을 ‘열매’, ‘눈물’, ‘보석’, ‘재’ 등의 사물을 통해 이미지화하면서 自然的 存在들의 非本質的 속성으로 하여 本質的인 것이 형성되게 하는 상상력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자연(사물) 이미지는 시인의 超越精神에 의해 의미화된 가치지향적 이미지들이라 하겠는데, 현상적 존재로서의 자연(사물)은 인간의 精神에 의해 새로운 가치성을 형성할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본질적 세계에 닿아 있지 않음을 인식하는 기독교의 이원적 세계관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시에 나타난 이러한 이원적 세계는 모순과 갈등의 구조라기보다 和解와 變容의 변증법적 지양의 구조로 형상화된다. 박두진 시의 자연이 인간적 염원과 절대자의 섭리를 표출하는 ‘자아에 의해 인격화된 자연’이라면, 김현승의 그것은 지상적인 것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의 초월을 지향하게 되는 ‘자아인식 도구로서의 자연’이라 할 수 있다. 다같이 주관에 의해 변형된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박두진의 시에서는 시적 자아가 신적인 자연을 향해 同一化를 지향하는 태도를 볼 수 있고, 이에 비해 김현승의 시에서는 내면적인 세계로 物的 自然을 끌어들이 시적 자아의 초월을 지향하게 되는 방향성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요컨

29) 김현승, 《산문집-고독과 시-》, (지식산업사, 1977), p.201.

대, 박두진의 자연관이 신념의 당위론적인 것이라면, 김현승의 자연관은 인식의 존재론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운동주가 전자의 유형에 가깝다면 구상의 자연수용은 후자의 유형에 보다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역사관

기독교시의 또 하나의 관심은 기독교의 궁극적 목표인 구원이나 부활의 사상에 도달하기 위하여, 시인이 모순과 불의의 현실을 어떻게 시로써 대응해갔느냐 하는 점이다. 김현승은 고독의 추구로 개인의 구원문제에 기울어져 대 사회 역사의식이 덜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의 고독추구는 그에게 감상이나 허무가 아닌 삶의 활력소가 되어 윤리적으로는 진실된 자신을 발견하여 대 사회적 관계에까지 인식이 확대 되기도 한다. 《옹호자의 노래》나 《김현승 시초》의 일부 시에서 사회의 불의에 항거하는 시편을 보여주고 있는데, 불의와 거짓이 만연할 때 그러한 역사 구조를 바꾸기 보다 날카로운 비판적 안목을 견지한다. 박두진은 중기 시를 중심으로 하여 치열한 현실의식을 보여주었는데, 미래지향적인 역사관에 입각한 使徒意識의 구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서는 광복 전의 운동주와 광복 후 구상의 시에 나타나는 기독교정신으로서 자기희생적인 역사의식을 대비해보고자 한다.

운동주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희생정신으로 어두운 시대현실과 자아의 갈등을 극복하고 역사현실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확립한 시인이다. 그의 성장배경이 독립운동의 현장인 북간도의 龍井·明東이라는 전기적 사실에서, 그 같은 역사환경의 분위기가 그의 내면적 의식형성에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그의 성장환경은 참담한 동포의 슬픔과 고통을 인식하게 되는 모태가 되고, 그 극복의 형상을 내면에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시 〈참회록〉은 역사적 자아의 내면적 성찰의 본보기가 되는 시이다. 운동주는 〈참회록〉에 와서 〈자화상〉류의 관조적 자아인식에서 역사인식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참회록〉에서는 〈자화상〉적인 그리움은 소멸되어 있고 오직 욕됨과 부끄러움과 참회만이 존재한다. 녹이 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통해 민족의 과거와 관계지어진 역사적 자아의 분열된 모습을 인식하고,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 손 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4연)라고 하면서 민족의식의 회복을 위한 실천적 결의와 의지를 드러내 보인다. 자기성찰의 자세가 점차로 역사상황에 대해 저항적인 의미를 띠고 나가는데, 이러한 결의가 한계상황에 부딪칠 때 〈십자가〉에서와 같이 민족의 새 아침을 기다리는 역사적 자아로서 모든 수난을 각오하게 된다. 이러한 참회와 자기희생정신은 인간의 원초적인 죄에 대한 의식과 자신의 행동과 실천력의 결여에 대한 부끄러움 의식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앞에서 보았다.

구상도 운동주와 같이 기독교정신을 하나의 실천윤리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의 역사관은,

삶에 있어서 다수의 인간에게 보편하는 문제의식이나 고민, 그 때문에 비롯되는 괴로움이나 슬픔에 대한 구제와 자기희생으로 나타난다. 그는 실존적 삶에 있어서 사회의 부조리나 인간의 죄악, 윤리의 타락, 拜金主義 등에 저항적이며, 기독교적 윤리관을 철저히 내세운다. 연작시 <까마귀>에서는 현실과 인간의 관계에서 ‘不義가 빚어낸 災殃’이나 ‘눈 뒤집힌 세상살이’를 보고 ‘까옥 까옥’ 울면서 경고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자적 태도는 자기성찰과 참회, 사회윤리적 책임을 통감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그의 시 <自首> (“실은 지금까지 迷宮에 빠진 사건이란/사건의 正犯 이야말로/바로 저율시다 - 4연 -”)에서 보듯, 시인 자신이 모든 죄악의 공모자이며 공범자라는 죄의식으로, 시대와 인간존재의 윤리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의 역사관은 원죄의식과 고뇌, 삶의 자세와 모랄, 나아가 이웃에 대한 사랑과 화해를 패턴으로 하여 나타난다. 운동주와 구상은 모두 人間苦와 現實惡을 신앙적, 윤리적으로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간회복 정신에 바탕을 둔, 자기성찰과 참회, 자기희생정신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러한 기독교적 역사의식이 시로 나타날 때 그것이 도그마화되지 않고 인간의 현실문제를 내면 세계로 돌려놓아 보편성을 기초로 하고 있어, 시적 가치가 더욱 심화, 확대되고 있다.

### 3) 종교적 구원관

기독교에서의 구원의 성취는 예수를 신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를 구세주로 믿어 신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시편> 51:5)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로마서> 1:17) 궁극에는 하나님 자녀의 영광과 자유(<로마서> 8:21)에 이르는 패턴으로 성취된다. 이와같은 교리적인 구원의 성취는 신앙고백적인 시의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와는 다른, 삶의 실존적 정황 속에서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초월을 지향하는 구원의 형상이 기독교시에서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종교적 구원의 동기는 1) 현실적인 삶에서 비롯되는 직접적인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 나려는 것과, 2) 삶의 존재론적 근거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비롯되는 해답을 추구하려는 것의 두 유형을 볼 수 있다. 후자의 유형에 김현승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김현승은 고독이라는 관념의 세계에 침거하면서 神과 靈魂의 문제를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이념을 만들어내는, 자기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여 구원을 성취하려는, 반기독교적, 반신론적인 구원관을 견지하였다. 즉, 그의 내면적 구원의 성취에 神의 인 힘의 개입을 거부하고 고독의 시적 탐구로 존재의 초월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존재는 그 자연성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가진 인격성으로 해서 절대자의 주관성을 창조적 행위로 암시할 수 있는 존재이고,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는 인격적 존

재라고 하는 낭만주의적 인간관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시에서는 事物性 이미지의 終息과 함께 人格的 超越의 이미지를 접하게 되는데, 이 지상의 것이 사라진 다음 천상적인 것이 열리는 이미지 구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시적 지향은 고향으로 인한 줄도로 육신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 급선회하여 초월자, 절대자와 마주선 유한성의 인간의 모습으로 신앙시를 쓰게 된다. 《하얀 날개》의 일부 시와 《마지막 地上에서》의 시에 신앙으로 귀의하는 시편을 볼 수 있는데, 영혼은 죽은 후에도 그 靈性을 잃지 않으며 (<知覺>), 여전히 자유를 행사하고 (<마지막 地上에서>), 부활이야 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復活節에>) 전통적인 기독교의 구원관을 보여주었다.

한편, 박두진은 초월적인 존재나 원리, 절대적인 힘에 철저하게 자기를 봉헌함으로써 구원을 성취하고자 하였으며, 윤동주는 십자가의 예수를 典範으로 한 자기희생으로써 시대적 소명과 자기구원의 성취를 모색하여, 초월자와 합일적인 존재가 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구상은 죽음을 영원성을 지니는 종교적 질서로 의식하고, 재생과 부활의 믿음으로 죽음을 절대자의 자연섭리로 받아들인다. (<訃音>, <江 10>, <臨終豫習>) 그의 재생이미지는 ‘강’을 소재로한 시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강’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서 존재의 본질을 의식하고 復活과 回歸를 사유하고 있다. 輪回의 강에서 因果의 허울을 벗은 나와 현존(부활)으로 다시 만날 것을 바라고 그것을 믿고 있다. 육신의 죽음은 있으나 영혼의 죽음은 없고 천국에 새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기독교적 내세관을 내비친다. 이러한 기독교적 상상력은 부활을 예언하고 구원의 패턴을 노래하게 된다.

#### IV. 결 론

지금까지 한국현대기독교시의 시문학사적 위상을 살펴보기 위해, 그 형성·전개과정을 문학적 관점에서 요약, 정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현대시사상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윤동주, 김현승, 박두진, 구상 등 네 시인의 시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다음, 그들의 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세계관을 몇 가지 관점에서 대비해보았다.

기독교시가 형성, 전개되는 동안, 기독교 사상이 시로써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데에는 몇 가지 양상을 볼 수가 있었는데, 1) 성서적 소재를 단순하게 인용하여 관념적 서술에 그친 것, 2) 확고한 기독교 교리에 입각하여 신앙고백을 위주로 한 것, 3) 나아가 시적 체험과 시적 정서가 융합되어 바람직하게 시로 형상화된 것 등 단계적인 발전과정을 보여주었다. 3)의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은 위의 네 시인의 작품에서 상당히 이루어져 시문학사상으로도 대단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 되었다.

기독교시의 형성과정을 볼 때, 1910년대 최남선, 이광수의 시에서는 기독교가 신앙으로써 보다는 사변적, 교훈적 진리를 설득하는 지식으로 머문 느낌이며, 1920년대의 몇몇 시에서도 기독교적 관념이 시적 정서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였다. 이 무렵 기독교는 사회의 정신적 지주가 되지 못하고 개인의 신앙고백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30년대 이후 암흑기에 등장한 정지용, 윤동주, 그리고 김현승과 박두진의 초기시에서 시대적 상황에 보다 밀착된 구체적인 표현을 볼 수 있으며, 오신혜, 모운숙 등의 기독교시에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신앙적 염원을 보여주었다. 광복 이후 사회적 혼란과 갈등기에는 광복 전에 등장한 기독교시인들이 새롭게 활동을 전개하여 기독교시의 본격적인 출발기가 되었다. 자연에서 소재를 찾아 개인과 민족의 염원을 노래했다. 이 시기에 새로 등장한 시인들에 의해 참회와 기도, 개인과 집단의 구원, 참다운 진실과 인간성의 옹호 등 다양한 내용들이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표출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기독교시인의 양적인 팽창으로 기독교시단이 활기를 띠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활동한 김현승, 박두진, 구상 등은 각기 독자적인 기독교시의 영역을 보여주어 기독교적 상상력의 영역과 폭이 그만큼 확대되었다. 70년대의 산업화사회 이후에는 진보적인 신학사조를 반영하여, 소외되고 고통받는 대다수 민중의 해방자로서 ‘예수’를 형상화는 변화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같이 기독교시가 형성, 발전되어 가는 동안 기독교시로 일관하여 그 깊이와 수준을 더하여간 윤동주, 김현승, 박두진, 구상의 시세계를 분석, 대비해 시사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윤동주는 일제침략에 저항, 희생적 속죄의식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실천하였으며, ‘빛’과 ‘어둠’의 갈등을 희생양식으로 극복하여 시대적 아침의 광명을 기다리는 시적 구조를 보여준다. 그의 어둠인식은 개인적이기도 하고 민족적인 것이기도 한데, 이러한 시대적 고뇌를 기독교적 윤리의식으로 파악하고 희생정신으로 내면화하여 시대와 자아의 고통을 초극하고자 한 데서 그의 탁월성을 보게 된다.

김현승은 한국현대시에서는 보기 드물게 인간의 욕망이나 감정적 요소를 극도로 절제하면서 인간의 영혼과 그것의 구원문제를 고독으로써 탐구하여, 한국시에 사상적 깊이와 形而上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의 고독추구는 인간존재 내면의 고독한 자기응시라고 하겠는데, 이러한 추구는 일견 반기독교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의 자연수용태도를 보면, 본질적으로 기독교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김현승은 종교적 관념을 감각적 비유와 분석적 이미지로 연결하여 시적 성공을 거두었고, 인간존재의 유한성과 소멸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하여 본질적이며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는 초월적 정신의 시적 형상화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상상력의 의의를 엿볼 수 있다.

박두진은 ‘해’ 또는 ‘자연’의 이미지를 신적 속성으로 표현한 시인이다. 그의 자연은 미래의 희망을 표상하기도 하고, 시대적 불의를 거스르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절대자의 섭



리를 발견하고 존재의 초월을 지향하는 간접적 대상(수서시)이 되기도 한다. 그의 자연은 스스로 그 자연의 일부가 되고자 하고, 자연을 통해 절대자 ‘너’를 만나고, 현실적인 모든 갈등과 분열도 거기서 용해되는 건강한 자연이다. 그의 초월적 기독교자연의 형상화는 한국 자연시의 새로운 영역을 확보해 가고 있다.

구상은 카롤리시즘을 바탕으로 역사와 인간의 존재문제를 추구한 시인이다. 일련의 연작시를 통하여 존재의 무한한 다면성과 내면적 복합성을 인식하고자 하며, 실존적 삶의 모순과 불의에 대해 고민하면서, 삶과 죽음의 참뜻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투시, 존재의 근원을 밝히려고 애쓴 시인으로, 박두진의 대 사회의식과 김현승의 존재탐구적인 시경향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특히, ‘강’의 이미지는 자연적 공간에 머물지 않고 사색과 관찰로써 영원 속의 현존으로서 우주의 질서를 파악하고 인간의 본질을 인식하는 상상력을 보여준다.

문학작품에 있어 사상성이 주요한 내적 요인이 된다고 할 때, 종교적 소재로서 기독교는 삶의 가치와 존재론적 문제, 선악의 가치판단, 형이상학적 문제 등 문학의 사상성을 형성해주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한국의 현대시가 전개되는 동안 기독교는 주요한 시정신의 하나로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현대시의 사상적 깊이와 상상력의 폭을 확대시켜 왔음을 볼 수 있다. 기독교시의 전개로 우리 현대시는 새로운 기독교 모랄과 기독교적 휴머니즘을 접하게 되어, 현실대응의 새로운 논리를 얻을 수 있었으며, 유한한 인간존재의 초월방식에 있어서도 새로운 세계관을 가져왔다. 또한 전통적인 자연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주관에 의해 변형된 자연을 끌어들이어 근대적인 자연관을 형성하는 데 일정한 구실을 하기도 하였다. 기독교 사상은 이제 현대 시정신의 중요한 한 분야를 이루고 있으며, 뚜렷한 실체로 부각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기독교시의 가능성을 위하여서는 기독교의 도그마를 문학의 형식을 빌려 표현하는 호교적인 문학이나, 기독교적 정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채 관념적, 사변적인 시를 남발하는 기독교시는 배제되어야 하며, 기독교의 모랄과 문학의 모랄이 상호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산되는 작품이 활발하게 창작되어야 할 것이다.

## ABSTRACT

### Korean Literature and its Acceptance of Christianity

The present studies aimed to clarify the matter how Korean literature has accepted the influence of Christianity. Our literature, up to the Koryŏ dynasty, had accepted the absolute influence of Buddhism. In the Yi dynasty, Confucianism had influenced our literature and had been reflected in the literary thought. However since Christianity was introduced into Korea after eighteenth century, its power have extended and it began to affect the Korean literature. It has passed just 200 years or more since Christianity was introduced into Korea. During that time, having gone through many trials, Christianity have now grown to influence considerably almost every field of Korean literature.

The first part of this book was taken charge of by Prof. So Jae Young. He aimed to examine the process of Christian acceptance historically in the title "The Development of Christianity and Korean Literature." In this part he examined it up to the literature of enlightened age. Then he presented critical theory as well as defending one about Christianity, and established historical organization laying stress on the documents and literary works. The principal items are as follows;

- o Acceptance of Christianity and Resistance against it.
- o Introduced Literary Works of Christianity.
- o An Interpretation of "Hong Gil Dong Jeon" and "Choon Hyang Jeon" as Christian Literary Works.
- o Literary Works in the Enlightened Age and Christianity.

The second part was written by Prof. Cho Kyu Ick. In the title of "Christianity and Traditional Poetry", he examined the Christian influence on Korean traditional poetry. In this part he mainly analyzed the religious KASA (a kind of long poetry written in Yi dynasty and in the enlightened age) especially that of Christianity, centering around the influence of Psalm and others on Kasa in the enlightened age. The principal items are as follows;

- o Historical Development of Religious Songs
- o Formation and Structure of Christian Kasa
- o Interrelationships between Psalm and Traditional Songs

The third part, written by Prof. Han Seung Ock in the title of "Christianity and Modern Novel," dealt with the matter how Christianity influenced the modern novel. In this part he examined the general aspects of Christianity which had been accepted in the modern

novel, then he analyzed and criticized the concrete works by listing them according to the writers. Especially he concentrated upon the 7 modern writers who wrote christian novels; Lee Kwang Soo, Kim Dong In, Jeon Young Taek, Yeom Sang Seop, Shim Hoon, Kim Dong Ri, and Hwang Soon Won.

Prof. Kwon Yung Jin took charge of the fourth part. In the title of “Christianity and Modern Poetry”, he examined almost all the modern poets and poems that had been influenced by christianity. Here he divided the poems into two groups; before and after the restoration of independence on Japanese imperialism. Then he dealt with the general problems of christianity, especially with several of the important poets; Yun Dong Joo, Kim Hyun Seung, Pak Doo Jin, Koo Sang, etc. The principal items are;

- o Presentations of Questions and Tendency of Existing Researches.
- o Formation and Tasks of Modern Christian Poems.
- o Concrete analysis about Modern Christian Poems.
- o General Investigation.

Unifying the four studies above, we could present a digested “History of Christian Literature.” Despite there being many individual literary studies about the literature of christianity, general ones of it are rare. This book “Korean Literature and its Acceptance of Christianity” may have profound significance in the fact that it is a regular ‘History of Christian Literature’ which has accomplished by collaboration in a mission school. In order to verify the existing results of studies, we appended “Bibliography of the Papers about Christianity” at the end of this book, so that researchers may consult it handily.